2017년 1월 1주차 (2016.12.27 - 2017.1.2)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중국 유커 관광산업, 먹고 마시고 즐기는 힐링 체험형 중시 (1번 기사) -2016년 1~9월 해외여행에 나선 중국인 연인원 1억150만명에 육박, 사상 처음으로 3분기만에 1억명 돌파 -2017년 중국 관광산업은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고급 여행상품 예약하는 중국인 증가 2) 중국 씨트립(Ctrip)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의료여행보고서**' (2번 기사) -2016년 한해 해외 의료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는 50만명(지난해보다 5배가량 증가)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금액은 5만위안(약 865만원)(일반 관광객의 10배) -중국인의 주요 테마 여행 순위, 5대 해외 여행지, 5대 해외 의료여행 프로그램 소개 3) 제주도: 감소하는 제주도 방문 일본인 관광객을 다시 끌어들일 방안으로 한방 의료관광 제시 (3번 기사) -개별 한의원의 수익증대, 제주산 한약재 사용, 고소득 일자리 창출, 숙박 등 다양한 연계 산업을 통해 도민의 소득 증대 기대
	해외	1) 미국: 호텔산업을 끌어올리는 의료관광 (5번 기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호텔예약 건수에 큰 영향 미치는 중 -미국 호텔 체인들이 각 도시의 의료 시설 옆에 들어서는 중 2) 인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테마 관광 개발과 의료관광위원회 부활시키는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 (6번 기사)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중국	2017년 가장 핫한 투자분야로 떠오를 중국 8대 유망 비즈니스	*유커 관광산업, 먹고 마시고 즐기는 힐링 체험형 중시 -세계 3대 관광지인 중국은 세계 최대 출국 여행객과 세계 최대 관광시장을 보유한 여행 대국 -2016년 1~9월 해외여행에 나선 중국인 연인원 1억150만명에 육박, 사상 처음으로 3분기만에 1억명 돌파 -2014년 GDP 대비 관광수입(3조7300억위안) 비중은 10.39% 2015년에는 관광수입이 4조1300억위안에 달해 GDP 비중이 10.80%로 확대 -2017년 중국 관광산업은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유커들의 여행 소비 행태가 단순한 쇼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힐링·체험형으로 빠르게 변화 중 실제로 지난 2016년 상반기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에서 예약된 단체여행 및 자유여행 빅데이터를 보면 고급 여행상품인 4다이아 혹은 5다이아 여행상품을 예약한 중국인이 70% 육박	NEWSPIM	2017.1.1	Link
2		중국	프리미엄 유커가 뜬다, 중국인 의료관광 급증 1년새 5배 증가	-2016년 중국의 해외 의료여행 유커 수 50만명을 돌파(1년 만에 시장 규모 5배 이상 성장)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의료여행국가 1위 일본, 2위 한국 *중국 씨트립(Ctrip)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의료여행보고서**' -2016년 한해 해외 의료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는 50만명(지난해보다 5배가량 증가)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금액은 5만위안(약 865만원)(일반 관광객의 10배) -의료여행은 극지탐험에 이어 가장 지출이 큰 여행 -주요 테마여행 순위: 1위 자연탐사 2위 오프로드 어드벤처 3위 스키여행 **4위 의료관광** 5위 신혼여행 -5대 해외 의료여행지: 일본, 한국, 미국, 대만, 독일 일본: 암 예방 및 신체검사 **한국: 성형 및 신체검사** 미국: 유전자검사 *건강검진여행이 전체 의료여행의 50% 차지 -씨트립에서 선정한 5대 해외 의료여행 프로그램 1위: 조기 암 진단(일본) 2위: 2박3일 신체검사(일본) 3위: 암·뇌질환·흉부질환 검진(일본) 4위: 7박9일 유전자검사 (미국) **5위: 3박4일 종합건강검진(한국)** -중국인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찾는 여행국가로는 **미국 일본 스위스 인도** -미국과 일본은 종양치료, 스위스와 인도는 심장 뇌 혈관질환 치료로 유명 -인도의 경우 진료비용과 약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신흥 의료여행지로 부상 -2016년 기준 해외 의료여행을 많이 가는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창저우, 선전 순	NEWSPIM	2017.1.2	Link
3		제주도	제주 관광의 새로운 핵이 필요하다	*일본인 제주 관광 실태 -일본의 노인인구 급증과 의료 적자는 국가적 문제, 약으로 연명하는 만성질환 노인들의 의료비 증가로 일본 사회가 건강한 노년을 누리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라이프사이클을 원함 -현재 장기 체류형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일본 노인들이 동남아로 몰리고 있는 실정 -일본 관광객 감소의 본질적 이유는 '제주 관광의 핵'이 없다는 지적 *한방 의료관광 육성 제안 -일본 관광객을 다시 제주로 불러들이는 통로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없는 한의학 이용 제안 -청정자연, 불로초, 800여가지의 약용 자원 등 한의학 연계 자원 덕분에 제주는 한방 의료관광의 최적지 -장기 체류형 한방 의료관광은 개별 한의원의 수익증대뿐만 아니라 제주산 한약재 사용, 고소득 일자리 창출, 숙박 등 다양한 연계 산업을 통해 도민의 소득을 올리는 방안 될 것	제주신보	2017.1.3	Link
4		멕시코	올해 쿠바 찾은 관광객 사상 최대…13% 증가한 400만명	-올해 사상 최대인 400만 명의 외국인이 쿠바 방문 (전년 대비 13% 증가) -쿠바 관광부는 "미국인과 유럽 관광객의 입국이 많이 늘었고 다른 국가의 관광객 수도 의미 있는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 -국가별로 보면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의 순 -올해 상반기에 쿠바를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모두 13만7천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0% 증가	연합뉴스	2017.1.1	Link
5	**해외**	미국	호텔산업을 끌어올리는 의료관광 Medical Tourism Can Possibly Push Up Hotel Activities: Best Medical Tourism Spots In The US	-작은 규모의 시장이었던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중 -성형부터 암치료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호텔예약 건수에 큰 영향 미치는 중 -미국 호텔 체인들이 각 도시의 의료 시설 옆에 들어서는 중	Travelers Today	2016.12.28	Link
6		인도	정부, 테마 관광 푸쉬 중 Govt push to theme tourism	-인도 정부, 마하라슈트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테마 관광 개발할 것 촉구 -관광부는 마하라슈트의 의료관광위원회를 부활시킬 계획 -남아시아에서 최신 기술을 보유한 병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The Times of India	2016.12.26	Link
7		미국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가는 많은 미국인들 Many Americans Travel to Other Countries for Medical Care	-의료관광 에이전시 MedRepublic에 의하면 미국인들에게 탑 의료관광지는 태국 -다른 국가에서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의료 서비스를 찾는 경우 미국에서 시술	Voice of America	2016.12.26	Link

2017년 1월 2주차 (2017.1.3 - 2017.1.9)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성형을 위해 한국 방문하는 중국 의료관광객 급감 중 (1번 기사) -원인: 사드 배치, 한국 의사의 원정 시술, 중국 내 한국식 병원 등장 -해결책: 외국인 환자 유치 채널을 다각화 필요 강조 2) 정부, 올해 해외 관광객 유치 정책의 초점을 고급 여행상품 개발과 개별 여행객에 맞춤 (2번 기사) 문화체육관광부 ', 올해 225억원을 들여 '개별관광객 특화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예정 3) 대구시, 중앙아시아권의 의료관광 진출 확대를 위해 카자흐스탄 금융기관인 '알파뱅크'와 제휴카드 제작 추진 (3번 기사)
	해외	1)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자 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위해 노력중 (6번 기사) 'Care by Heart, Visit Medical Korea!' 라는 슬로건 다소 어설프다고 평가 2) 일본 ANA 항공사, 중국 상류층 대상으로 건강검진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 (7번 기사) 총 3일 소요 일정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건강검진료 포함하여 상품 가격은 50,800 위안 ($7,325) 부터 시작 3) 최고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하는 4개 국가 (8번 기사)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선정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서울 (강남)	성형관광' 끊기니 강남이 아우성	* 성형 위해 한국 방문하는 중국 의료관광객 현황 -중국인 환자의 성형외과 방문 비율 2009년 27.2%에서 2014년에는 68.6%로 급증 환자 수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30배 이상 증가 -하지만 최근 유커(游客·중국 단체여행객)의 감소로 우리나라 '성형관광'에 적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을 찾은 전체 중국인 환자의 24%가 성형외과 방문, 2014년에 비해 27.9% 가까이 감소 * 감소 원인 1) **사드 배치** - 많은 성형외과 관계자들 "사드 체계 배치 발표 이후 더욱 급격히 환자 수 감소" 2) **한국 의사의 중국 현지 시술** -몇 년 전부터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는 주말마다 중국으로 건너가 '가욋돈'을 벌어 들임 또한 중국 의료기업과 정식 협약을 맺어 의료기술 전수 3) **'한국식 중국병원'** 및 현지 의료 기술 발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성형외과는 믿기 힘들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5년 사이 장족의 발전을 이뤄 지금은 강남 일대 유명 성형외과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 속속 생겨남 '한국식 중국병원'으로, 거대 자본을 앞세워 한국 성형외과를 100% 벤치마킹한 곳들 -내·외부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한국식으로 갖춰놓고 한국 유명 의사를 초빙해 환자 유치 -오히려 한국보다 수술 비용이 비싼 곳도 있지만 한국까지 건너가 수술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중국 상류층이 주요 고객 -현지 의사 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퍼지면 중국인이 원정 성형수술을 받을 필요 없어짐 * 외국인 환자 유치 채널 다각화 필요 -성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채널을 다각화하면서 해외 진출 박차를 가해야 함 -최근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도하려는 업체 증가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한류 영향으로 방한하는 의료관광객이 2014년 8000명에서 2015년 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6.5% 증가	주간동아	201612.28	Link
2		정부	부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사드 파고 넘는다	* 정부, 올해 해외 관광객 유치 정책의 초점을 **고급 여행상품 개발**과 **개별 여행객**에 맞춤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225억원을 들여 '개별관광객 특화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단체 관광객과 비교해 개별관광객은 타국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없고 1인당 객단가(구매액)가 높아서 유통·관광업계 수익성에 큰 도움 -**싼커**'(散客)로 불리는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유명 음식점 홍보·평가 사이트를 통해 국내 유명 식당과 셰프 등을 소개하고, 중국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 내 방한상품 전용관 등도 개설 -중국 상류층을 유치할 수 있는 30여 개 '프리미엄'급 관광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프리미엄 상품으로 선정되면 '한류 상품'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	연합뉴스	2017.1.6	Link
3		대구	대구시-카자흐 '메디시티' 제휴카드 추진	-대구시, 중앙아시아권의 의료관광 진출 확대를 위해 카자흐스탄 금융기관인 '알파뱅크'와 제휴카드 제작 추진 -16~21일 카자흐스탄 알파뱅크 임직원 일행이 대구 방문하여 '메디시티 대구' 제휴카드 제작을 위한 협의 및 팸투어 진행할 예정	대구신문	2017.1.8	Link
4		병원	광주시 '의료관광도시' 도약 노린다	* 광주 산부인과 전문 씨엘병원, 이달 중 몽골 진출 예정 -씨엘병원은 난·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하는 몽골인 환자 증가로 몽골 분원 설립을 추진해옴 -현지인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이들을 활용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 *몽골 대기업 'MCS' 등 2개 기업이 지난 해 광주시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지역 의료 관광 프로그램을 검토 중 대규모 의료 관광객 유치 기대 * 현재 광주지역 의료 관광 수요는 중국인이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10%), 미국(7%) 순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2014년 1850명에서 2015년 2744명으로 급증 -2016년에는 약 3500여명이 광주를 찾은 것으로 추정 * 광주시는 올해는 5000여명 이상을 유치하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지원책 마련에 돌입 -지역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1박 이상 숙박하고 2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쓸 경우 유치한 의료기관 등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급 -해외 현지 신문, 잡지, TV 광고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 지원 -단체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 -해외에 있는 외국인 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에 검진·진료 문의를 하면 번역 서비스 제공	광남일보	2017.1.8	Link
5		병원	한류의료관광 특화된 의료기술 전수 움직임	-일본과 활발한 교류 협력의 분위기 일어나고 있음 -게이오대 가와모리 교수 및 사업팀은 최근 한국의료관광 상황을 파악하고 일본 내 vip들의 한류의료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한국 방문함 -이제는 일반적인 여행, 일반적인 의료관광이 아닌 개별병원 혹은 각 진료과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연수를 지원하는 등 의료기술의 전수는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	CIOBIZ	2017.1.3	Link

6	**해외**	한국	SOUTH KOREA TARGETS MIDDLE EAST PATIENTS 중동 환자들 공략하는 한국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자 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위해 노력중 아부다비에서 의료관광 전시회 열고 합리적 가격의 패키지 상품 추진하지만 'Care by Heart, Visit Medical Korea!' 라는 다소 어설픈 슬로건으로 진행 중	IMTJ	2017.1.5	Link
7		일본	ANA to offer Japan medical tourism packages	-일본 ANA 항공사, 중국 상류층 대상으로 건강검진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건강검진료가 포함되어 있고 총 3일 소요의 일정으로 상품 가격은 50,800 위안 ($7,325) 부터 시작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	Nikkei Asian Review	2017.1.5	Link
8		세계	4 Countries With The Best Healthcare In The World 최고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국가	1. 말레이시아 : 의료관광 대국 2016년 전세계에서 백만명 이상의 의료관광객들이 말레이시아 방문 2. 코스타리카 : 낮은 비용과 높은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 4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매년 의료시술과 치과 치료를 위해 코스타리카 방문 3. 콜롬비아: 건강 대국 WHO는 콜롬비아의 헬스케어 시스템 순위를 191개국 중 22위로 책정했는데 30위의 캐나다와 37위의 미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순위 4. 멕시코 :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매년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여러 의료 서비스와 치과 치료를 위해 멕시코 방문	International Living	2017.1.5	Link

2017년 1월 3주차 (2017.1.10 - 2017.1.16)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사드배치가 중국인 관광객 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분석 -경북: 사드보복은 기우일 뿐 오히려 요우커 큰 폭으로 증가 (1번 기사) -전남: 사드보복으로 인해 중국관광객 급감, 전세기 50편 취소, 중국 현지 여행사와의 업무협약 취소 (2번 기사) 2) 대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 1월에 150명, 2월까지 총 300명 방문 예정 (3번 기사) 3)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 시작 (4번 기사)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할 예정
	해외	1) 대만: 점점 적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을 받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의 관광객은 늘어나는 추세 (6번 기사) -2016년 9월까지 대만을 방문하는 중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감소하였으나 유럽, 북미, 홍콩, 마카오에서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증가 2) 미국: 해외로 나가는 의료관광객 수 증가 추세 (7번 기사) 높은 비용으로 인해 해외로 향하는 치과 의료관광객 증가 (8번 기사)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경북	사드 보복은 기우, 요우커 더 늘었다	-중국 정부의 한국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한류 금지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북을 찾는 요우커 늘고 있음 -경북도 시군의 숙박업소 110곳의 실태조사에서 2016년 10월 말 기준 16만5천 명의 요우커와 중화권 전체 27만5천 명이 방문, 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이 있었으나 요우커가 2015년에서 2016년까지 7만5천800 명이 늘어난 것 -지난해 성주군 사드 배치를 발표한 7월 중국인 방한 객은 91만7천 명으로 월간 중국인 방한 객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가 이어지면서 단체 관광객이 감소해 면세점 업계의 수난이 예상되고 있지만, 개별관광객은 오히려 증가 추세	경북일보	2017.1.16	Link
2		전남	사드로 광주·전남 중국관광객 급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높아지면서 광주·전남 중국관광객 급감 -전남 방문 중국관광객 수 변동: 2013년 12만7000여명에서 2014년 16만3000여명으로 크게 증가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13만9000여명으로 감소 → 지난해 회복기미 → 사드 배치로 16만5000여명 유치하는데 그침 -같은 기간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관광객은 2013년 2만325명에서 2014년 3만1523명, 2015년 3만6538명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해 3만2694명으로 감소 지난해 7월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 전세기 50편이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 -광주시가 지난해 5월 중국 현지 7개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1만명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사드 배치로 모두 무산	내일신문	2017.1.10	Link
3		대전	중국 단체의료관광객 300명 대전 몰려와	-대전광역시와 대전마케팅공사, 1월 20~22일 중국 단체 의료관광객 150명을 시작으로 2월까지 총 300여명이 대전을 방문한다고 발표 -중국 산동성과 사천성, 하북성에서 지역방송사와 청소년 기관 등과 연계해 모집한 관광객들로 체류 기간 동안 치과, 안과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참석과 함께 국립중앙과학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을 방문할 예정 -관내학교와 협력하여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한-중간 문화 소통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류의 문화를 알릴 계획	환경일보	2017.1.16	Link
4		정부	지정마크 부여'로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선택이 쉬워진다	-보건복지부,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 시작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함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	아시아뉴스통신	2017.1.12	Link
5		정부	[수첩] 해외에서 본 한국의료의 가능성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2010년 58개에서 2015년 18개 국가에 141개(누적)로 2.4배 성장 -지난해 6월에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으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진출은 점차 속도가 붙을 것이라 전망 -그러나 한국의료가 뛰어난 의료인력과 기술, 시스템 수준을 갖고 있어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현실 -우수분야를 선정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료를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도 필요 -몇 년 뒤에는 한국이 '성형'으로만 유명한 곳이 아닌, 의료 자체의 수준이 높은 나라로 대표되어야 할 것	메디파나뉴스	2017.1.12	Link
6	해외	대만	대만 의료관광,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방문하는 의료관광객 증가 TAIWAN MEDICAL TOURISM HELPED BY INCREASE IN NON-CHINESE PATIENTS	-대만, 점점 적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을 받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의 관광객은 늘어나는 추세 -2016년 9월까지 대만을 방문하는 중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감소하였으나 유럽, 북미, 홍콩, 마카오에서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증가 -중국 의료관광객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정부차원 또는 병원차원에서 다양한 국가의 의료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	IMTJ	2017.1.9	Link
7		미국	해외로 나가는 의료관광객 시장 Outbound Medical Tourism Services Market	-북미에서 해외로 의료서비스를 위해 출국하는 의료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추세 -미국의 의료시술비는 인도, 멕시코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85% 높은 수준 -환자들의 해외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시장 성장률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	PR Newswire	2017.1.16	Link
8		미국	치과 의료관광의 증가 The rise of dental tourism	-선진국에서 증가하는 치과 치료 비용으로 인해 해외로 향하는 의료관광객 증가 -미국 뿐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같은 현상 나타남 -이전에는 인접국가를 선호했으나 장거리 비행도 마다하지 않는 추세	Tourism-Review.com	2017.1.10	Link

gaon net

*뉴스클리핑 담당: 방미환 사원

2017년 1월 4주차 (2017.1.17 - 2017.1.23)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인천, 경기도 김포, 의정부시 등 전국 상당수의 지역자치단체가 거대한 의료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 중 (1번 기사) 그러나 막대한 사업자본을 필요로 하는 거대 사업으로 이렇다 할 추진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사드 갈등에도 수학여행으로 대구 찾은 600여명의 중국 초,중학생 (3번 기사) 기존 단체 관광객에서 특수목적 관광객으로 이치 타깃을 변경한 것이 유효했음 3) 제주도: 최근 몇 년간 제주 관광의 호황을 이끌었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 (4번 기사) 중국 정부가 방한 관광객 규모를 축소하고,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면서 관광객 줄었다고 분석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관광업계 비상
	해외	1) 의료 시술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BookDoc은 세계 최대 여행 전문 사이트인 TripAdvisor와 컨텐츠 파트너십 발표 (6번 기사) 이를 통해 BookDoc 이용자들은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태국에서 의료 시술 예약한 곳 근처의 식당, 관광명소 등을 검색할 수 있게 됨 2) 홍콩 베이스의 프라이빗 제트기 서비스 제공 회사, L'voyage는 점점 증가하는 울트라리치 중국인 해외의료관광객 받는 중 (7번 기사) 목적지는 주로 중국,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태국이며 선진화된 의료시술을 위해 미국과 유럽 또한 많이 방문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지자체 의료관광사업 봇물, "시작은 창대하나…끝은?"	-인천, 경기도 김포, 의정부시는 물론 강원도 강릉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전국 상당수의 지역자치단체가 거대한 의료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 중 -하지만 막대한 사업자본을 필요로 하는 거대 사업으로 이렇다 할 추진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북한이라는 리스크, 최근 중국과의 갈등에 의한 협한류 움직임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으로 인해 선뜻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	메디파나뉴스	2017.1.19	Link
2		경기 (의정부)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 외국인 전용 의료관광시설 입지 추진	-오는 4월 본격적인 개장을 준비중인 의정부시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에 외국인 전용 의료관광시설 설립 추진 -19개 층의 호텔동 중 6개 층을 의료관광시설로 조성, 3개 층은 뷰티와 성형, 부인 등 3개 과목 병원이 들어서고 나머지 3개 층은 환자 전용 숙박시설로 꾸밀 계획 -아일랜드캐슬이 서울권에 있고 숙박료가 서울보다 저렴해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경쟁력 있을 것으로 기대	경인일보	2017.1.19	Link
3		대구	사드 갈등에도 대구 찾는 유커…19일 초·중학생 600명 수학여행	-17일 중국 강소성 등지의 초`중학생 600명이 대구로 수학여행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주춤한 상황에서 청신호  -기존 단체 관광객에서 특수목적 관광객으로 유치 타깃을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  *특수목적 관광객: 수학여행, 실버 관광, 기업 인센티브 관광, 의료`미용 관광, 문화`예술`스포츠 관광 등 특별한 관심 분야를 충족하기 위한 관광객	매일신문	2017.1.18	Link
4		제주도	사라진 유커… 제주 전세버스 가동률 10%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제주 관광에 먹구름 최근 몇 년간 제주 관광의 호황을 이끌었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 -항공기 이용 관광객 수만 따지면 지난해(4만1490명)보다 37.5% 줄어든 현황 -제주도관광협회, 중국 정부가 방한 관광객 규모를 축소하고,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면서 관광객 줄었다고 분석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관광업계 비상 ·전세버스 가동률 10~15%에 불과 ·중국인 관광객이 화장품과 의료제품을 쇼핑하는 거리로 이름난 제주 중앙 지하상가의 매출은 70%가량 감소 ·선물로 인기였던 초콜릿의 주문량도 30% 정도 감소 ·올 한 해 크루즈선이 당초 730회(총 28척)에 걸쳐 제주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선사 2곳이 제주 기항 줄여 입항 횟수가 704회로 감소	조선일보	2017.1.20	Link
5		제주도	중국 일변도 탈피, 제주 관광시장 다변화 '주력'	-23일부터 3일간 제주웰컴센터 및 도내 일원에서 해외 11개 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장(중국 5, 대만 1, 일본 3, 말레이시아 1, 베트남 1)과 도, 제주관광공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하는 2017년 합동 워크숍 진행 -중국 사드영향 및 한한령 등의 대외적 위협요인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가단체관광을 고부가 개별·목적 관광(HIS . H: High Quality I:Individual S:Special)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 논의 -일본 관광시장 회복, 동남아·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 마케팅 거점 확보와 의료관광 타겟 마케팅 활동 계획 논의	제주의 소리	2017.1.22	Link
6	해외	세계	BookDoc과 TripAdvisor의 컨텐츠 파트너십 BookDoc Makes Medical Tourism More Enjoyable with TripAdvisor	-의료 시술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BookDoc은 세계 최대 여행 전문 사이트인 TripAdvisor와 컨텐츠 파트너십 발표 -이를 통해 BookDoc 이용자들은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태국에서 의료 시술 예약한 곳 근처의 식당, 관광명소 등을 검색할 수 있게 됨 -이러한 파트너쉽을 통해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통합된 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마련	YAHOO Finance	2017.1.17	Link
7		홍콩	울트라리치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프라이빗 제트기 PRIVATE JET CHARTERS FOR CHINESE MEDICAL TOURISTS	-홍콩 베이스의 프라이빗 제트기 서비스 제공 회사, L'voyage는 해외 의료관광을 원하는 울트라리치 중국인 관광객들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음 -목적지는 주로 중국,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태국이며 선진화된 의료시술을 위해 미국과 유럽 또한 많이 방문 -울트라리치는 개인당 적어도 5천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며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 않음 -울트라리치들의 해외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고객을 받을 것으로 예상	IMTJ	2017.1.20	Link
8		미국	해외로 나가는 의료관광 시장: 성형 및 치료분야 환자 수 증가 Outboud Medical Tourism Services Market: Cosmetic Surgery Treatment Therapeutic Application Segment	-북미지역에서 해외로 의료관광을 나가는 관광객 수가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는 중 -미국에 비해 82%정도 치료비가 저렴한 인도, 멕시코 등의 국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의료관광객 증가로 인해 시장 성장 속도 또한 가속이 붙고 있음	YAHOO Finance	2017.1.17	Link

gagon net

*뉴스클리핑 담당: 방미환 사원

2017년 2월 1주차 (2017.1.24 - 2017.2.6)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중국 -외국인 관광객의 30-40% 몰리는 성수기임에도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성 조치 여파로 인해 염려하는 강남 성형외과 (1번 기사) -경기도의 중국기업 투자 유치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직격탄 맞을 것이라는 우려 (2번 기사) -성형외과 3곳을 대상으로 공갈 협박하여 합의금 받아낸 중국인 블랙컨슈머 리 씨 구속 (4번 기사) 2)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외국인환자 유치 업체 다수 적발 (6번 기사) 3) 대구 -지난해 대구지역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 (7번 기사) 대구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5년 메르스 파동, 지난해 사드 여파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지난해에만 50% 이상 증가 -대구시가 정부 지원으로 추진해 온 해외환자 유치사업에서 실적을 72배나 부풀려 정부에 보고했다는 보도 (8번 기사)
	해외	1) 미국 -단순 여행 뿐 아니라 의료 관광지로서 홍보를 박차고 있는 라스베가스 (11번 기사) 이미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상하는 의료 관광지로서 유리한 점이 많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의 주요 타겟이 중동국가인 것을 감안할 때 의료관광업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2번 기사) 2) 인도 -인도 정부, 더 많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0년 장기 복수 비자 정책 승인 (13번 기사) -처음으로 인도 방문 의료관광객들 중 인도 주변국가 관광객들이 1위를 차지 (14번 기사) 2016년 137만명의 방글라데시 관광객이 인도를 방문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한파보다 무서운 사드'…춘제 앞둔 강남 성형외과 '전전긍긍'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과 겨울 방학이 겹치면서 전체 손님의 30~40%가 몰리는 성수기 -그러나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를 문제 삼은 중국의 각종 보복성 조치 여파가 의료 관광에까지 미칠까 염려 각종 할인 등 판촉 행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분위기 -계약금 환불 거부나 과장 광고 등에 따른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외과 피해 상담 중 3건 중 1건이 겨울방학 기간인 12~2월에 집중됨	이데일리	2017.1.25	Link
2		경기도	경기도 '사드 보복'에 올해 中기업 투자 유치 '빨간불'	-지난해 잘 나가던 경기도의 중국기업 투자 유치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직격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550개 기업으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3천547개의 15.5%를 차지했으며 투자규모는 3억4천800만 달러로 전체(145억 달러)의 2.4% -실제 도는 지난해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중국기업으로부터 굵직한 투자를 유치했으나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진 뒤 투자 유치는 물론 무역도 어려운 상황 -동남아시아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국내 대기업의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도록 투자를 유치할 방침	연합뉴스	2017.1.29	Link
3		정부	[취재현장]유커, 변수 아닌 상수 되려면?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한한령에 이어 관광객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중국 최대 명절 '춘절'기간임에도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유커)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 관광업계는 사드의 영향에도 춘제 기간 한국을 찾는 유커 수가 14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업계 전망 빗나감 -개별관광객 많은 서울 강남, 명동은 타격이 비교적 적지만 단체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와 부산, 인천 등이 문제 특히 제주 지역은 상황이 심각해 춘절 기간 제주를 찾은 유커가 지난해보다 1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그동안 유커가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라는 착각의 늪에서 빠져 있었던 관광업계의 인식 문제 이제 그 늪에서 빠져 나와 유커를 상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한류 드라마 촬영지 등 새로운 관광 스토리 발굴은 물론 문화 체험을 중시하는 개별관광객의 니즈를 반영한 스토리텔링 상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과 VIP 관광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	아주경제	2017.1.31	Link
4		정부	"의료사고 당했다"… 강남 성형외과 등치는 中관광객	-서초경찰서, 공갈과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중국인 의료관광객 리 씨 구속 리 씨는 다른 병원 3곳에서도 돈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공갈을 이어온 '상습범'이었음 -의료업계를 노리는 블랙컨슈머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 성형외과가 타깃 중국 온라인에 게시된 한국 성형관광 후기 중에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수술비 일부나 전부를 돌려 받은 내용도 적지 않으며 경찰 등에 신고해 해결했다는 글도 있음 -중국인 블랙컨슈머의 출현은 한국 성형업계가 자초했다는 시각도 있음 내국인 비용보다 2,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바가지를 씌우거나 대리 의사가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 성행하면서 한국 성형업계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	동아닷컴	2017.2.3	Link
5		정부	변해가는 관광지형…유커 줄고 싼커·무슬림으로 '선회'	-관광의 충성 고객인 단체 중국 관광객이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 문제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슬림 관광객이 중국 고객의 공백을 메우는 차선책으로 급부상 중 -지난해 한국을 찾은 무슬림 관광객은 전년의 77만 명에서 33% 증가한 98만 명 이는 지난해 외래 관광객 증가율 30.3%를 넘는 수치로 비주류로 인식되던 무슬림 관광객이 주류로 진입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단체 중국 관광객(유커)이 줄고, 개별 중국 관광객(싼커)과 무슬림 관광객이 늘며 관광 산업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 높음 -중국 관광객은 단체가 줄긴 했지만, 개별 여행객이 60%까지 늘어 전체 중국 관광객은 지난해 10월 2015년 대비 4.8%, 11월 1.8%, 12월 15% 각각 증가 무슬림 관광객도 개별 여행객이 60% 정도여서 개별 여행객에 대한 맞춤 서비스 수요 급증	머니투데이	2017.2.2	Link
6		정부	외국인환자 보호망 구멍…유치업체 10곳 중 3곳 보험 미가입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가운데 32%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외국인환자에 대한 보호망에 구멍 -감사원은 24일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6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는 기관은 의료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배상액 1억원 이상, 보증 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2009년 이후 535개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했다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된 사실이 드러남 -특히 2016년 7월 유치업자 1천666개 가운데 547개(32.8%)가 최대 1천937일까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진흥원이 운영하는 '메디컬 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이들 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었음	연합뉴스	2017.1.24	Link
7		대구	대구 방문 의료관광객, 연 2만명 처음으로 돌파	-지난해 대구지역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 -대구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5년 메르스 파동, 지난해 사드 여파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지난해에만 50% 이상 증가 -대구시는 현재 중국 귀주·쿤산, 필리핀 마닐라 등 해외 17곳에 홍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6개 병원이 해외에 진출해 있음 -중증 환자가 많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들 두 국가의 의료관광객은 2015년 383명에서 지난해 1862명으로 약 5배 증가 -대구시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됨	세계일보	2017.1.26	Link

8		대구	대구시 의료관광 '실적 뻥튀기'했다니	-대구시가 정부 지원으로 추진해 온 해외환자 유치사업에서 실적을 72배나 부풀려 정부에 보고했다는 보도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8, 9월 대구시의 2015년 핵심 의료기술인 '관절' 과목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비교 분석한 결과 유치한 해외환자 실인원이 19명에 그쳐 대구시가 제출한 1천377명의 1.4%에 불과했음 -특정 진료과목에서 해외환자 수가 적으면 다음 해 사업선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대구시가 복합진료를 받은 연간 해외환자 수를 포함시켜 72배나 부풀렸다는 것 -지난해 대구를 찾은 일반 외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41% 증가한 56만 명에 달했음 그런데 지난해 대구시가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업체에 지원한 금액은 24억8천300만원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숙박비를 비롯해 전세기, 전세버스, KTX 차비 등에 대구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관광지 체험비, 관광상품 개발 지원비 등도 대구시가 보조했기 때문에 대구에 숙박한 관광객이 그렇게 늘었다는 지적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해외 의료 관광객이 비수도권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대구시에 해외환자 유치실적 집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실적 평가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촉구 또한 감사원은 대구시가 '주먹구구식' 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평가	대구신문	2017.1.25	Link
9		충북	"의료 관광 잡아라"…中·몽골 등 5개국에 충북 홍보관	-충북도는 올해 몽골의 울란바토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중국 정저우(鄭州), 베트남 호찌민, 러시아 아쿠츠크 등 5곳에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함 -충북도는 지난해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중국 창사 등 3곳에 홍보관을 운영했는데 몽골 홍보관은 90명에 그쳤던 의료 관광객을 200명 이상 늘리는 데 성공하여 올해도 홍보관을 유지하기로 결정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2곳은 철수했고 대신 지난해 진행한 현지 설명회에서 반응이 좋았던 4곳에 홍보관을 새로 설립하기로 함 -그 결과, 2013년 816명이었던 의료 관광객이 2014년 2천333명, 2015년 2천714명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3천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됨	연합뉴스	2017.1.30	Link
10		일본	도쿄대병원 등 28곳, 의료관광 거점병원된다…日,본격 지원나서	-일본 정부가 도쿄대 등 유명 대학병원과 연계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섬 -일본 정부는 최근 의료관광 거점병원으로 도쿄대·오사카대 부속병원, 게이오대병원 등 전국 28개 병원 선정 '일본국제병원(Japan International Hospital)'으로 외국 정부나 의료기관 등에 소개할 방침 -의료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의료비자 발급 건수는 2015년 약 950건으로 4년 전의 13배로 늘었지만, 관광비자 등으로 방문해도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의료관광객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됨	연합뉴스	2017.1.31	Link
11	**해외**	미국	성형 의료 관광지로 부상하는 라스베가스 Las Vegas becoming destination for plastic surgery tourism	-단순 여행 뿐 아니라 의료 관광지로서 홍보를 박차고 있는 라스베가스 -미국 현지인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광을 위해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중 -이미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상하는 의료 관광지로서 유리한 점 많음	s Vegas Review-Jour	2017.2.6	Link
12		미국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의료관광에 미칠 영향 우려 How Trump's travel ban could hit medical tourism hard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의 주요 타겟이 중동국가인 것을 감안할 때 의료관광업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자국에서 받을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위해 해외로 향하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 -911 테러 이후 의료관광은 급감했고 환자들은 비자 발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그러한 현상이 또 나타날까 염려되는 분위기	Crain's	2017.2.1	Link
13		인도	인도 의료관광을 도울 새로운 비자 정책 NEW VISA RULES FOR INDIA WILL HELP MEDICAL TOURISM	-인도 정부는 더 많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정책 완화 승인함 -정책이 완화된 장기복수비자를 허가함으로 외국인들의 관광, 사업, 의료서비스 수요 등을 더욱 폭넓게 수용할 것으로 기대 -해당 비자 기간은 최대 10년이고, 노동이나 영구 주거는 불가	IMTJ	2017.2.2	Link
14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행 의료관광객 중 1위 차지 Bangladesh replaces US on tourist inflow	-처음으로 인도 방문 의료관광객들 중 인도 주변국가 관광객들이 1위를 차지 -관광처 통계에 다르면 2016년 137만명의 방글라데시 관광객이 인도를 방문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 -반면 미국과 영국 관광객들은 각각 8.2%, 10.4% 증가하는 데 그침 -2015년 인도에서 발행된 의료관광비자는 134,344건인데 이 중 절반이 방글라데시 관광객 2016년 상반기 발행된 의료관광 비자는 약 97,000건으로 크게 증가	Business Standard	2017.2.7	Link
15		태국	태국 의료 관광에 관한 새로운 통계 NEW DATA ON THAILAND MEDICAL TOURISM	-태국 경제지식센터의 추정치에 의하면 태국 방문 관광객 중 의료관광객 비율은 9%에 불과하지만 매우 수익성이 좋은 부분 -일반 관광객보다 의료 관광객의 지출이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 성형수술을 위해 2주간 태국에 머무는 의료관광객들의 평균 지출액은 4,200달러 일반 문화, 레져 관광객들은 6일간 평균 1,300달러 지출 -의료관광객들은 대부분 에미레이트 또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오는 것으로 알려짐	IMTJ	2017.1.31	Link

2017년 2월 2주차 (2017.2.7 - 2017.2.13)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증가하는 무슬림 관광객들 (1번 기사)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무슬림은 2015년보다 33%나 늘어난 98만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110만명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 2) 강남,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실무담당자 교육 진행 (2번 기사) 영어, 의료 실무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 의료분쟁 전문가 상담실을 오픈, 의료관광 협력기관에 통역비 지원 등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할 예정 3) 시력교정수술 보편화로 외국인 환자 증가 (5번 기사) 한국은 다양한 시력교정수술 경험과 정교함으로 인해 다른 의료선진국에 비해 강점을 가짐 최근 여러 나라 외국인 환자들이 시력교정수술 의뢰 4) 대구시,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사업평가 '전국 1위' (6번 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간 공모, 선정 된 4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 진행한 결과 대구를 1위로 선정하고 2017년 사업비 3억원 배정
	해외	1) 임신촉진치료를 위해 호주로 향하는 중국인 커플들 (7번 기사) 중국 내 증가하는 중산층과 한자녀정책 완화로 인해 중국에서 IVF 시술을 받으려면 대기시간 최대 2년에 달하는 상황 많은 중국인들이 IVF 시술을 위해 해외로 향하고 있음 2) 해외 의료관광의 장점 소개 (8번 기사) 비용 절감, 보험 적용, 서비스질과 만족도, 휴가로 인한 빠른 회복 등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만파식적] 무슬림 관광객 100만 시대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화장품 판매회사 임직원 1,154명 관광객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에서 온 단체 관광객 중 최대 규모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무슬림은 겨울철 눈과 추위에 특히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기에 겨울철 방문률 높음 -중동 무슬림은 의료 관광에 관심이 크기 때문인지 지출비용이 훨씬 높음 동남아 출신이 지난해 한 사람당 평균 1,234달러를 쓴 데 비해 중동 무슬림은 1,951달러로 씀씀이가 컸음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무슬림은 2015년보다 33%나 늘어난 98만명을 기록 올해는 110만명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	서울경제	2017.2.13	Link
2		서울 (강남)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강남구, 의료기관 교육	-강남, 8일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실무담당자 교육 진행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정보관리 방법, 강남구의 올해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 작년 말 도입된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제도 등 새해 바뀐 법 제도 소개 -6월에는 외국인환자를 직접 응대하는 실무자를 위해 메디컬 영어 교육 진행할 계획 -8월에는 심폐소생술·AED 사용법 교육 예정 -4월과 10월에는 의료분쟁 예방·해결을 위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 전문가 상담실 오픈할 예정 -올해 의료관광 협력기관에 통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할 예정	연합뉴스	2017.2.7	Link
3		서울 (강서)	강서구, 서울 최초 의료관광특구 규제 완화	-강서구, 발산역 인근 신축 예정인 서울스타병원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150% 완화한 규제특례 적용하기로 결정 -이번 규제특례 적용으로 서울스타병원은 건폐율을 54%, 용적률을 375%로 완화해 지하 3층, 지상 9층의 건물 지을 예정 -병원측은 늘어난 건축 공간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 진료 안내센터 등을 만들고 국제진료지원팀을 신설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 -이번 규제특례 적용을 시작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존 의료기관의 증·개축이나, 새로운 의료기관의 신축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규제 완화에 따른 의료 및 관광 산업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시민일보	2017.2.13	Link
4		인천	하나은행-길병원 '외국인환자 의료결제' 협력	-KEB하나은행과 가천대길병원이 7일 외국인 환자를 위한 메디컬(Medical) 결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 -양측은 앞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 결제와 글로벌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더욱 쉽게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	인천일보	2017.2.9	Link
5		대전	[외국인환자] 시력교정수술 보편화 외국인 환자 늘어	-시력교정수술은 동양권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된 대상인데, 근시 인구가 많고 콘택트렌즈 사용자가 많아 수술 기회가 상대적으로 충분 -이 때문에 다양한 수술 경험과 수술 기술의 정교함이 더해져 다른 의료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강점 있는 분야 중 하나 -이러한 영향으로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수술을 의뢰하는 경우 많음	대전일보	2017.2.13	Link
6		경북	대구시,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사업평가 '전국 1위'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6년 3년간 공모·선정된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실적 및 현장(1차), 추진계획(2차)에 대한 평가 진행 -대구를 1위로 선정하고 2017년 사업비 3억 원 배정	경북일보	2017.2.9	Link
7	해외	중국	IVF 시술(임신촉진치료)를 위해 호주를 찾는 중국인 커플들 Chinese couples to be flown to Australia for IVF treatment	-호주 멜버른의 한 체외수정 클리닉은 임신촉진치료를 위해 호주를 찾는 중국인 커플들을 받는 동의서 사인 -최대 100명의 중국인 여성들이 세계최초 IVF 임신을 성공시킨 곳인 Monash IVF 클리닉에서 시술을 받을 예정 -중국 내 증가하는 중산층과 한자녀정책 완화로 인해 중국에서 IVF 시술을 받으려면 대기시간 최대 2년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IVF 시술을 위해 해외로 향하고 있음	ShanghaiDaily.com	2017.2.9	Link
8		세계	의료관광: 해외에서 만나는 헬스케어 베네핏 Medical Tourism: The Benefits of Seeking Healthcare Abroad	1. 큰 비용 절감: 환자들이 해외에서 의료시술을 찾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2. 보험 적용 가능한 경우: 몇몇 보험회사들은 환자들이 자국에서 비싼 의료시술을 받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해외에서 치료받을 것을 적극 권면함 3. 서비스질과 환자 만족도에 더욱 집중: 해외 환자의 경험과 평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4. 휴가를 즐기며 더욱 빠른 회복 가능	outbreaknews today	2017.2.13	Link

2017년 2월 3주차 (2017.2.14 - 2017.2.20)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우리은행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1번 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한국 의료서비스 예약 통합 플랫폼'(http://health.medicalkorea.or.kr)에 **예약 예치금 시스템** 도입 2.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책정** (2번 기사)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역, 교통, 관광, 숙박비 등은 제외
	해외	1. 고급 의료관광 틈새시장을 노리는 한국에 대한 외신 기사 (7번 기사) 최근 한국은 태국, 인도와 같이 이미 건강검진 등으로 잘 알려진 의료관광 국가들 사이에서 고급 의료관광이라는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오는 중 한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뒤지지 않는 중증 질환 생존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쿠웨이트와 UAE 같은 GCC 국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환자 유치를 늘리는 중 2.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산업, 올해 2억 9천 달러의 수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8번 기사) 고급형 의료관광으로 틈새시장을 노리는 한국, 특수 의료 시술로 잘 알려진 싱가폴, 막대한 의료관광객 수를 자랑하는 태국 등 여러 경쟁국들 있지만 이들은 모두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우리은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우리은행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한국 의료서비스 예약 통합 플랫폼'(http://health.medicalkorea.or.kr)에 **예약 예치금 시스템** 도입 *기대효과: -안정적인 예약체계 실현 및 노쇼(No Show) 고객 방지 -병원·상품·단계별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가격 제공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결합된 의료관광 복합상품(Medical Tourism) 판매 확대	머니투데이	2017.2.16	Link
2		정부	가슴수술이 2억?…의료관광 바가지 상혼 막는다	-중국인 의료관광객 A씨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억원을 주고 가슴확대 수술 받음 다른 환자 시술금액의 27배에 달하는 금액 당시 이 수술을 주선한 브로커는 수술비의 90%를 수수료 챙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적정 수수료율 상한선이 정해질 예정 정부는 이번 상한선 제정으로 의료관광 불법브로커의 수수료 부풀리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책정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역, 교통, 관광, 숙박비 등은 제외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 차지 비율로 규정	이데일리	2017.2.14	Link
3		정부	HDC신라면세, 성형외과의사회와 협약..'의료관광 활성화'	-HDC신라면세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건전한 의료관광 확대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용산 전자상가 및 주변 스파 시설과 연계를 통한 IT문화, 숙박, 쇼핑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의 혜택을 누림	이데일리	2017.2.17	Link
4		제주도	중국계 녹지국제병원 연내 개원…"국내 의료·관광 진작효과는 제한적"	-우리나라 첫 외국계 영리병원으로 논란이 된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올해로 예정 -병원 설립 효과로 관광활성화, 주변 의료기관에 긍정적 영향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의사회 입장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시각 -제주시의사회 이태훈 회장, 의사회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이며 녹지병원은 외국자본이 유입된 것으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영역 내에서만 생활하고 귀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함을 밝힘 -병원 신축에만 779억 원이 투입됐지만 병상 수는 47병상뿐에 불과 고가 시술을 원하는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한다는 전략 때문	메디파나뉴스	2017.2.20	Link
5		인천	[인천, 관광메카로 비상하라] 크루즈·환승객 의료관광, 인천만의 킬러콘텐츠로 키워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환승의료관광' 콘텐츠 추진 중 2015년 기준 인천공항 환승객은 741만여 명으로 6시간 이상 환승객만 약 70만 명에 달함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환승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말 인천공항 터미널 내에 환승의료관광 홍보관 오픈 장거리 여행으로 지치고 피곤한 환승객을 대상으로 환승의료관광 상품을 원스톱으로 지원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건강 공항(Medical Hub Airport)'으로 알려 장거리 환승객들에게 인천공항 의료관광 상품이 각인될 수 있도록 추진 중 공항 도착 후 1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1-Hour medical service system' 등 차별화된 환승의료관광 상품을 운영할 예정	기호일보	2017.2.16	Link
6		경기도 (성남)	성남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모집한다	-경기도 성남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커뮤니케이터)를 추가 모집 -현재 성남시에는 10명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활동 중 -모집대상은 성남에 거주시민, 결혼 이주여성,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으로 해당 언어별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종전에는 결혼 이주여성에 한해 모집했으나 일반시민과 대학생도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방 -모집분야는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와 함께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이 새로 추가됨	아시아경제	2017.2.15	Link
7	**해외**	한국	GCC에서 고급 의료관광 시장을 노리는 한국 South Korea looks to tap into GCC's high-end medical tourism market	-태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건강검진 등으로 잘 알려진 의료관광 국가 -최근 한국은 이러한 아시아 의료관광 산업 분야에 고급 의료관광이라는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오는 중 -쿠웨이트와 UAE 같은 GCC 국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환자 유치를 늘리는 중 -한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뒤지지 않는 중증 질환 생존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Muscat Daily	2017.2.19	Link
8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에서 2억 9천 달러의 수익 바라보는 말레이시아 Malaysia set to earn US$292 million revenue from medical tourism	-말레이시아 헬스케어관광 의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산업은 올해 2억 9천 달러의 수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됨 -지난해 2억 2천 달러와 비교했을 때 30% 증가된 수치 -인도네시아 의료관광객이 수익 중 70%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급형 의료관광으로 틈새시장을 노리는 한국, 특수 의료 시술로 잘 알려진 싱가폴, 막대한 의료관광객 수를 자랑하는 태국 등 여러 경쟁국들이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모두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South China Morning Post	2017.2.14	Link
9		세계	Asia Medical Tourism Congress Indea 개최 예정 소식 TOI & WMTC partner to launch Asia Medical Tourism Congress India	-아시아가 의료관광의 세계적 허브로 성장하는 가운데 전세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Asia Medical Tourism Congress India (AMTCI)가 개최될 예정 -3월 7-8일에 개최되며 유럽, SAARC(남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서 많은 병원 관계자, 의사, 헬스케어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	Indiatimes	2017.2.17	Link

gaon net

*뉴스클리핑 담당: 방미환 사원

2017년 2월 4주차 (2017.2.21 - 2017.2.27)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외국인환자 30만 시대, 브로커 유치 증가세는 주춤 (1번 기사) -브로커 통한 외국인환자는 2011년 8098명에서 2012년 1만5406명, 2013년 2만6630명, 2014년 2만7398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으로 감소함 2) 메르스 타격받았던 해외환자 유치 다시 증가 (2번 기사)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로 의료부문에 지출한 금액은 5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 -메르스 발생 이전 2014년의 5092억원보다도 높은 수치로 메르스로 인해 줄어든 의료관광객이 회복된 것 3) 중국인 여행공식 '쇼핑' 아닌 '성형관광'으로 바뀜 (4번 기사) -중국인 여행객 수는 사드 때문에 냉랭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증가하는 추세 -중국인 단체여행객 수는 크게 줄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의료관광을 위해 방문해 상담 받는 건수는 2016년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 4) 중국 의료관광객 빈 자리 '러시아·척추·관절' 타깃 (7번 기사) -사드배치 역풍과 유커 감소로 인해 중국인 대상 의료관광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지자체들 사이에서 러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의료광고 홍보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 5)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에 성형외과 유치 추진 중 (9번 기사) -제2터미널 환승 구역에 중국인 관광객 등을 겨냥한 성형외과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 -성형수술을 받으러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서 성형 시술·피부 관리를 받고 곧장 본국으로 되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
	해외	1) 한국 의료관광시장, 2017-2022년에 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10번 기사) -주요 성장요인으로는 선진화된 의료기술력, 성형과 치과 분야의 선구적인 역할, 우수한 의료진, 경제적인 시술비, 강력한 정부차원의 서포트 등을 꼽음 2) 일본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제공하는 일본 ANA 항공사 (11번 기사) -ANA는 카메다 메디컬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부유층 중심의 의료관광객을 타깃으로 3일 코스 의료관광패키지 상품을 내놓음 3) 파운드화 약세로 인해 증가하는 런던 의료관광 (12번 기사) -페루, 중국, 수단, 우즈벡 등 다양한 국가의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위해 영국 찾음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외국인환자 30만 시대…브로커 유치 증가세 '주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5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브로커 통한 외국인환자는 2011년 8098명에서 2012년 1만5406명, 2013년 2만6630명, 2014년 2만7398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으로 감소함 -2012년 이후 브로커가 유치한 국가 중 러시아환자가 전체 1위를 차지, 우즈베키스탄 환자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높은 연평균증가율(155%) 보임	메디컬투데이	2017.2.18	Link
2		정부	메르스 타격받았던 해외환자 유치 다시 증가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로 의료부문에 지출한 금액은 5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 메르스 발생 이전 2014년의 5092억원보다도 높은 수치로 메르스로 인해 줄어든 의료관광객이 회복된 것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총지출액은 13조7000억원 2015년 10조4000억 대비 32% 증가한 금액 -지난해 국내 의료부문에 신용카드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외국인은 중국인 총 2906억원 사용, 전체 외국인 중 56.7% 차지, 미주 지역의 792억원보다도 높은 수치 -중국에 이어 미국이 12.6%인 645억원, 러시아가 7.5%인 384억원을 지출	데일리메디	2017.2.23	Link
3		정부	복지부·문체부, 의료관광 활성화 손 잡는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월 27일 의료관광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평창올림픽 연계 홍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 개발 등 올해 주요 협력과제 논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활용 한국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 관광 연계 상품개발, 의료관광 웹사이트 (visitmedicalkorea.com)활성화, 외 홍보. 박람회 협업, 외국인환자 유치 신규제도 홍보, 의료관광객 지원 센터 간 협업체계 강화, 의료관광 역량 강화 등 7개의 협업과제를 공유	메디컬투데이	2017.2.28	Link
4		중국	중국인 여행공식 '쇼핑' 아닌 '성형관광'으로 바꼈다	-중국인 여행객은 단체여행·쇼핑이라는 공식이 사라질 전망 중국인 여행객은 2016년 806만 7722명으로 2015년 대비 34.8%가 성장, 전체 방한 외국인의 46.8% -이런 인기는 사드 때문에 냉랭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증가하는 추세 2017년 1월 56만 5243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았으며 전년동기 8.3%가 증가한 수치 -중국 씨트립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해외 맞춤 여행, 테마 여행, 티켓 판매율 등 자유 여행과 관련된 증가율 각각 400%, 250%, 100% -한국관광공사의 한 담당자는 "실제로 중국인 단체여행객 수는 크게 줄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의료관광을 위해 방문해 상담받는 건수는 2016년 하반기부터 크게 늘었다"며 "중국인 개별관광객 사이에서도 이른바 '대통령 주사'라고 불리는 피부미용을 위한 '라이넥주'가 가장 인기 있다"고 언급	트래블바이크뉴스	2017.2.28	Link
5		중국	성형 한류 벗어나 중증질환 중국인 환자 유치 나서야	-선진적 의료기술, 더 좋은 서비스, 또는 풍부한 관광 자원 체험을 위해 국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KOTRA 중국 선양무역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중국 내 해외 의료관광 시장규모는 연평균 140% 성장했으며, 의료관광 중개 시장은 연평균 185%의 성장세 보이고 있음 -중국 산업 정보망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의료관광 중개업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2억1000만 위안에서 2015년 15억6000만 위안으로 급성장 -또한 해외 의료관광 중개시장의 총 규모는 2012년부터 2015년 742.85% 성장 동 기간 중국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가 약 9140달러에서 1만4100달러로 기존의 52.26%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해외 의료 중개 시장이 소비력 증가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후생신보	2017.2.23	Link
6		중국	中 여행사, 세계 10대 자유여행지 부산 선정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C-trip)이 '2016 세계 10대 인기 자유여행지'로 부산 선정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태국 치앙마이, 이탈리아 베니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뉴질랜드 웰링턴, 호주 골드코스트, 스위스 루체른이 부산과 함께 이름 올림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키워드 검색 실적과 700만 C-trip 회원의 투표로 뽑힌 것으로 중국 내 부산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증명 -부산이 10대 자유여행지로 선정된 것은 이 기간에 개최한 원아시아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세계불꽃축제 등 대형 축제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	뉴시스	2017.2.22	Link

7		정부	중국 의료관광객 빈 자리 '러시아·척추·관절' 타깃	-사드배치 역풍과 유커 감소로 인해 중국인 대상 의료관광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지자체들 사이에서 러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의료광고 홍보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 -유가 상승 흐름과 맞물려 경기회복이 예측되는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홍보 활성화의 움직임이 커지는 분위기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서는 최초로 해외 의료관광객이 2만명을 돌파한 대구시는 올해부터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의 나눔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러시아 환자를 선정, 환자 수술비 및 체재비 등을 지원해 주고 현지에 부산의 선진 의료기술을 적극 홍보 중 블라디보스토크와 2시간 남짓 소요되는 직항로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은 해외환자 중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3.7%로 가장 높고 의료취약지에 속하는 극동지역 환자 유치를 위해 매년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서울 강서구 의료관광특구는 척추·관절·여성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중	데일리메디	2017.2.21	Link
8		인천	인천시, 의료관광클러스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	-인천시, 의료관광클러스터 고도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 받음 -최근 '인천형 융·복합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국에 제출해 최종 선정됨 -인천시는 국내 최초로 의료관광정보시스템(Medical Tou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해 인천시의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에 무상공급 확대함해 인프라 구축에 힘씀	중부일보	2017.2.22	Link
9		인천	"제2터미널에 성형외과 유치할 것"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환승 구역에 중국인 관광객 등을 겨냥한 성형외과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 -성형수술을 받으러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서 성형 시술·피부 관리를 받고 곧장 본국으로 되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 -성형 시술 목적으로 한국을 찾을 경우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	조선일보	2017.2.27	Link
10	**해외**	한국	한국 의료관광시장 2017-2022년에 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South Korea $2 Billion Medical Tourism Market 2017-2022 - Research and Markets	-한국 의료관광시장 규모가 2022년에는 거의 2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주요 성장요인으로는 선진화된 의료기술력, 성형과 치과 분야의 선구적인 역할, 우수한 의료진, 경제적인 시술비, 강력한 정부차원의 서포트 등을 꼽음	PR Newswire	2017.2.20	Link
11		일본	일본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제공하는 ANA 항공사 ANA TO OFFER JAPAN MEDICAL TOURISM PACKAGES	-일본 항공사 ANA가 카메다 메디컬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부유층 중심의 의료관광객을 타깃으로 의료관광패키지 상품을 내놓음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 도쿄로 가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호텔숙박, 건강검진, 일본 관광 등이 포함된 3일 여행 코스	IMTJ	2017.2.27	Link
12		영국	파운드화 약세로 인해 증가하는 런던 의료관광 WEAK POUND BOOSTS MEDICAL TOURISM TO LONDON	-최근 파운드 약세로 인해 의료관광차 영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 증가 추세 -페루, 중국, 수단, 우즈벡 등 다양한 국가의 환자들 증가 중	IMTJ	2017.2.18	Link
13		이집트	축구선수 메시, 이집트 의료관광 에이전시 Tour n' Cure의 홍보대사로 임명 Tour n' Cure: Messi promotes medical tourism in Egypt	-이집트의 의료관광 에이전시 Tour n' Cure는 최근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를 홍보대사로 임명 -이를 통해 C형 간염 치료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짧은 환자 대기 시간과 저렴한 비용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의료관광 강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 기대	Thte New Arab	2017.2.22	Link

2017년 3월 1주차 (2017.2.28 - 2017.3.6)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전국 관광업계 비상 -서울: 1) 피부과, 성형외과 등 내원 환자 급감 (1번 기사) 2) 중국인 관광객들 감소로 면세점에 큰 타격 (2번 기사) -대구: 1) 전세기 운항 불허로 유커 유치 무산 위기 (3번 기사) 2) 사드 대응책으로 특수목적관광객 공략 (4번 기사) -대전: 건강검진 예약했던 중국인들 돌연 예약 취소 (5번 기사) -부산: 중국 여행업체와 기업들의 부산 방문 협의가 무더기로 중단 (6번 기사) -전남: 중국 관광객 1000여명 참석 예정이었던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 사실상 전면 취소(7번 기사) 2. 사드 대응으로 중국 내 한국정부 공관들, 개별 비자 발급 (8번 기사) 여행사를 통한 비자신청은 중국 정부로 인해 중단되겠지만 개별 비자 발급으로 숨통 터놓겠다는 의지 3. 정부의 외국인환자 집계 방법 지적 (9번 기사)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경쟁으로 부풀리기도 하고, 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진료한 외국인 환자 수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등
	해외	1. 독일 의료 관광, 최근 해외 환자수 감소 중인데 특히 러시아 환자들 크게 감소 (11번 기사) 2.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급성장 중 (12번 기사) 중동과 북아프리카 환자들 증가 추세이며 2016년 최대 수익 낸 부문은 치과, 성형, 정형외과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서울	사드' 보복, 의료계도 직격탄 맞나‥그 여파는?	-서울시 내에서 중국 환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는 올해 들어 내원 환자가 급감 이번 달 중국 정부차원에서 한국 관광거부를 유도하며 '단교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자 방문 환자들 수 급감 중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의 수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부가세 환급금 지급으로 인해 다소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9월 사드 논란 이후 큰 폭으로 하락	메디파나뉴스	2017.3.7	Link
2		서울	사드 보복 피해 '도미노' 확산…면세점·의료업계 '울상'	-올 연말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오픈 예정 -서울 시내 면세점의 매출에서 중국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이 중 단체관광객 비중은 약 60% -신규면세점들은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 떨어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해 중국 유니언페이와 앞다퉈 제휴를 맺었던 국내 카드업계도 사업 차질 우려 *롯데 집중 타깃: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하여 중국 전역에서 불매 운동 일어나고,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 씨트립에서 '롯데호텔'이 갑자기 사라지는 등 집중적인 공격 타깃이 됨	CNBC	2017.3.6	Link
3		대구	사드 보복…대구시 중국 관광객 유치 계획 차질 "中 전세기 운항 불허…유커 7만명 유치 무산 위기"	-지난해 대구시는 중국 22개 도시에서 모두 262편의 전세기를 통해 유커 5만명을 지역에 유치했음 -올해 4~10월 청두와 우한 등 중국 18개 도시에 전세기 378편을 띄워 유커 7만명을 데려올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3월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은 전세기가 한 편도 없어 유커를 데려올 운송 수단이 없음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한국 전세기의 운항 신청을 계속 불허하고 있기 때문 -의료관광의 경우 대구~중국 간 정기편(베이징·상하이·선양) 노선은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짐 의료관광객은 전세기로 들어오는 단체관광이 아닌 정기편을 통한 개별관광(FIT)이 주를 이룸 하지만 지역 의료계는 사드문제가 지속된다면 의료관광업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영남일보	2017.3.3	Link
4		대구	日·동남아 시장 수학여행·의료·미용 관광객 잡아라	-대구시,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령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별관광객`특수목적관광객 유치와 대구공항 직항노선이 있거나 계획된 일본`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 관광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  -중국 당국의 통제권 밖인 개별관광객과 특수목적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 실제 중국 트레킹협회 관광객 110명과 광장무 관광객 600명 등 특수목적관광객들이 이 달에 대구 방문 예정  *특수목적관광객: 수학여행, 실버 관광, 기업 인센티브 관광, 의료`미용 관광, 문화`예술`스포츠 관광 등 특별한 관심 분야를 충족하기 위한 관광객을 의미	매일신문	2017.3.4	Link
5		대전	중국 사드 보복,지역경제 먹구름	-외국인 상대 검강검진으로 입소문이 난 대전의 한 종합병원, 중국 정부가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직후,단체 건강검진을 받으려던 중국인들이 돌연 예약을 취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밝혀 사드 보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본격화로 보이며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의 예약취소가 잇따라 대전시 의료관광산업 비상	TJB	2017.3.7	Link
6		부산	여행 금지령에 한국 안오고, 혐한 분위기에 중국 꺼려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린 2일 이후 현지 여행업체 또는 기업의 부산 방문 협의가 무더기로 중단 관광공사가 추진하던 중국 '니건 의료' 인센티브 관광 갑자기 무산 -인바운드 여행사인 진성관광여행사는 9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진행 중이던 관광상품 3개의 협의가 모두 중단 -아웃바운드 여행사들도 비상 중국행 여행객 사이에 '밥도 안 준다더라' '호텔에서 내쫓는다더라'는 식의 낭설이 나돌기도 함	국제신문	2017.3.6	Link
7		전남 (광주)	내달 개막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사드 직격탄	-다음달 1일 열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에 중국 관광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장무(廣場舞)를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전면 취소 -광주시는 프린지페스티벌을 통해 매월 1000여명의 중국 관광객을 중국 현지 여행사를 통해 유치할 계획으로 한 해 1만명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예상했었음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남경시 중국여행사와 중국청총위청소년교류센터, 연운항훼리사, 린이국제여행사, 한국대학연맹협회, 석도훼리사와 각각 '중국 광장무 관광객 유치 협약'을 체결했었음	광주일보	2017.3.7	Link
8		정부	주중공관들, 中의 '韓관광 중단'에 "직접 비자신청 받겠다" 맞불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중국 당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것에 대응해 중국 내 우리 공관들이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개별 비자를 직접 접수하기로 함 -여행사를 통한 비자신청은 중단되겠지만, 개별 비자 발급으로 숨통을 터놓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 -주중한국대사관은 3일부터 중국인의 비자 발급 신청을 총영사관 등 주중 공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함 베이징의 주중 대사관은 지정한 중국 여행사를 통해 중국인 비자 신청을 받아 관광 비자를 발급해왔으나, 이를 전격적으로 변경한 것	연합뉴스	2017.3.5	Link
9		정부	[기획]6년 만에 외국인환자 5배 증가?…허수 포함 가능성	-우리나라가 외국인환자 집계를 처음으로 시작한 2009년에는 6만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평균 31%씩 폭발적으로 증가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경쟁으로 인해 부풀려진 성과라는 지적 나옴 실제 외국인환자 30만명 중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환자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포함됐다는 것 -반대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환자 진료로 인한 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진료한 외국인환자 수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 이래저래 국내 외국인환자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 있음	청년의사	2017.3.6	Link
10		에이전시	의료관광 스타트업 '어게인트웬티' 'AI엔젤클럽'으로부터 1억원 투자 유치	-의료관광 O2O 플랫폼 '메이즈한'을 운영 중인 어게인트웬티가 지냄, 팀와이퍼, 리화이트 등 유수 스타트업에 투자한 'AI엔젤클럽'으로 부터 1억원의 투자를 유치 -어게인트웬티는 중국인 대상으로한 국내 최초 수가 공개 의료관광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 최근 중국 베이징 현지에 반영구 미용술, 피부관리, 의료관광 상담센터를 겸한 '메이즈한미용센터' 오픈하고, 중국 내 미용센터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를 위한 준비 중	플래텀	2017.3.3	Link

11	**해외**	독일	독일 의료관광, 러시아 환자들을 잃는 중 MEDICAL TOURISM IN GERMANY LOSING RUSSIANS	-독일 의료관광, 최근 해외 환자수 감소 중인데 특히 지난 수년 간 강세를 보였던 러시아 환자들이 감소 중 -2014년 러시아 환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약 9800명의 입원 환자와 15,000명의 외래환자가 독일을 방문했으나 2015년에는 32.4% 정도 감소 -원인은 푸틴 정부 하 러시아를 상대로 한 EU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러시아 환자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분석됨	Tourism-Review .com	2017.3.6	Link
12		말레이시아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 자랑하는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급성장 중 World's Best: Malaysia Medical Tourism Sector to Experience Extraordinary Growth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붐으로 MENA(중동, 북아프리카)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최대 수익을 낸 부문은 치과, 성형, 정형외과	AEC News	2017.3.6	Link

2017년 3월 2주차 (2017.3.7 - 2017.3.13)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정부: -중국의 사드 보복정책에 대한 대만과 일본의 대응 사례 (1번 기사) -중국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무슬림, CIS권 환자들에게 초점 (2번기사, 3번 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문화를 통해 보는 해외환자 이해하기' 등 자료집 3종 펴냄 (4번 기사) 2. 서울: -강남 성형외과, 밀집 지역의 약국들, 호텔들 모두 중국인 환자 급감으로 인해 큰 타격 (5번 기사) 3. 제주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85%에 달했기에 제주 관광시장에 매우 큰 타격 (7번 기사) 약 11만 1000여명이 제주관광 예약 취소한 것으로 조사됨 4. 병원: 경북대병원, KEB하나은행과 '글로벌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이용' MOU 체결 (12번 기사)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환자별 고유 외화 가상계좌를 이용해 자국에서 편리하게 의료비 송금
	해외	1. 미국: 트럼프의 여행제재방침이 미국으로 향하는 의료관광객들에게 영향 미칠 것이라는 우려 (13번 기사) 2. CIS: 주요 CIS 국가들 소개 (15번 기사) 러시아연방과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각각 선호하는 의료관광국 소개와 관련 통계 자료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중국의 사드보복, 의연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중국의 보복정책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 -대만: 중국의 여행금지령에 맞서 시장다변화·국내관광 확대 등 4대 전략 추진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와 비자 간소화 등으로 동남아시아 및 일본인들의 관광수요를 폭발시켜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천69만명(전년 대비 2.4% 증가)의 관광객 유치를 달성 -일본: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여행 전면중단으로 맞대응해 이듬해 8월까지 중국 방문 유커 수가 평균 28%나 급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돌파구로 비자간소화·엔저 정책·하늘 길 확대 등 시장다변화 모색해 유커 감소 여파 최소화	경북매일	2017.3.8	Link
2		정부	中·日 편중에서 벗어나 내수시장과 무슬림 관광객 전략으로	-중국에서 벗어난 다각화 해외 관광객 마케팅에서 무슬림 관광객은 가능성 높은 잠재적 시장 지난해 한국을 찾은 무슬림 관광객은 전년의 77만 명에서 33% 증가한 98만 명으로 집계됨 -공사관계자, "중국 여행객의 급감으로 떠오른 대안이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무슬림 관광객이며 올해 이들을 위한 마케팅 비용도 지난해 4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무슬림 인구 상당수가 중산층이고, 의료 관광이나 쇼핑에 대한 수요가 많아 공사 측은 침체한 관광 시장의 돌파구로 무슬림 관광객에 주목	머니투데이	2017.3.9	Link
3		정부	관광공사, 러시아·CIS권 최대 규모 관광박람회에서 한국 홍보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지사, 14-16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러시아·CIS권 최대 규모 관광박람회인 MITT(모스크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러시아 관광업계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한국 의료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	파이낸셜뉴스	2017.3.13	Link
4		정부	의료문화 통해 해외환자를 이해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해 '의료문화를 통해 보는 해외환자 이해하기' 등 자료집 3종 펴냄 -△의료문화를 통해 보는 해외환자 이해하기 △해외환자 진료를 위한 외국어 서식집 Part 1,2 △사례로 보는 해외환자 상담 실무 등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의 의료와 관련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해외환자 친화적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알기 쉽게 제작	의학신문	2017.3.8	Link
5		서울	성형외과 찾던 중국인 '어디로'…의료관광 30% 급감	-강남 성형외과, 전체 환자의 30% 차지하던 중국인환자들 최근 크게 감소 성형외과 밀집 지역의 약국들과 수술 환자들이 묵는 인근 호텔들 역시 큰 영향 받음 -의료관광업계에서는 사드 갈등이 불거진 지난해 중반부터 단체 의료관광객이 줄더니 최근 들어 개인 의료관광객까지 감소세가 가팔라짐 -여권에 한국을 갔다 왔다는 도장이 찍히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경우 있음 -성형 부작용, 사망 사례 등 2-3년 전부터 중국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여파 또한 무시할 수 없음	SBS NEWS	2017.3.7	Link
6		서울	팸투어에 비자 안 나온다?'…서울 자치구 의료관광에도 '사드 불똥'	-중구: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중국 심양시 기업가연합회의 의료관광 팸투어가 갑작스레 취소됨 중국 대신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준비 중 -강남구: 2010년부터 5년 연속 해외설명회를 계속해왔지만 올해는 계획에서 아예 중국을 제외하고 하반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갈 방침	뉴시스	2017.3.8	Link
7		제주도	제주 中사드보복 '직격탄'…유커 11만명 예약 취소	-사드배치로 제주관광 무더기 예약 취소, 대규모 개발 사업 차질 빚는 등 제주사회에 전방위적인 피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85%에 달했기에 피해는 정확히 집계하기 힘들지만 지난 6일 기준 제주관광 예약 취소 실태는 약 11만 1000여 명에 달한 -지난 4일부터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에서는 한국관광 상품이 완전히 사라짐 이로 인해 제주에 기항하던 크루즈 상품도 판매되지 않으면서 크루즈 관광객도 대거 줄어들 것으로 예상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받은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서귀포 동홍동, 토평동 일원에 짓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가 공정률 50%인 상태에서 차질을 빚음 국내 시공업체가 사업자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 지난 1월부터 중국 정부가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녹지그룹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News1	2017.3.7	Link
8		부산	부산시, 일본·대만 크루즈 의료관광객 유치 전략 펼친다	부산시, '크루즈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부산의 새로운 의료관광시장 창출하기 위해 10-12일 일본·대만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 '크루즈 의료관광 팸투어' 실시	뉴시스	2017.3.9	Link
9		대전	'中 사드보복' 대전시, 관광객 감소 대비책 착수	-대전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무역 차질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섬 -기존에 구축한 의료관광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개인 위주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계획이다. -정부보단 민간병원 간 특화의료기술 및 의료서비스 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의 민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각종 국제회의로 찾는 외국인 등을 상대로 한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 -중국 위주에서 벗어나 러시아·베트남 등의 다변화된 의료관광객 모객으로 여파를 최소화할 것	중도일보	2017.3.7	Link
10		인천	인천관광공사, 글로벌헬스케어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관광공사, ㈜글로벌헬스케어그룹과 3월 9일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관광사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함 -최근 급랭하는 한중관계로 인해 중국인들의 한국관광방문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 헬스케어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민간 협력을 통해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 -㈜글로벌헬스케어그룹은 '왕홍'을 적극 육성하는 '왕홍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최근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왕홍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들의 인천의료·웰니스상품 및 각종 문화, 먹거리 등 인천 관광콘텐츠 체험을 통해 중국의 젊은 층을 공략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매일일보	2017.3.10	Link
11		대구	'메디시티 대구' 러시아권 의료관광객 모시기 나섰다	-카자흐스탄 제3의 도시인 카라간다 시에 '메디시티 대구 홍보센터' 오픈 -카자흐스탄 은행인 알파뱅크와 대구 의료 관광 제휴 카드 발급 추진 중 우수 고객이 대구에서 의료비와 숙박비를 결제하면 최대 30%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 제공 -카자흐스탄 최대 여행사 트란사비아와 대구 의료 관광 상품도 개발하기로 함 5박 6일 또는 7박 8일 일정으로 대구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고 관광지를 둘러본 뒤 쇼핑도 하는 상품 -시는 카자흐스탄의 자매도시인 알마티시도 방문해 의사 연수와 합작 병원 건립 등 협력관계 확대키로 함	동아닷컴	2017.3.9	Link
12		병원	경북대병원-KEB하나은행, '글로벌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이용' MOU	-경북대병원, KEB하나은행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이용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은 의료관광 외국인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 -경북대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환자별 고유 외화 가상계좌를 이용해 자국에서 편리하게 의료비를 송금할 수 있고 병원은 외환 자금정산의 불편함을 덜게 됨	일요신문	2017.3.10	Link

13	**해외**	미국	트럼프의 정책, 미국 향하는 의료관광객들에 영향 줄 수도 TRUMP DAMAGES INBOUND MEDICAL TRAVEL TO USA	-트럼프의 여행제재방침이 미국으로 향하는 의료관광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 -2014년 7월부터 약 1년간 미국내 67개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 약 140개국에서 5만명의 환자가 의료시술을 받고자 미국 방문 -가장 많은 환자가 온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콰타르, 멕시코 -무슬림 국가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가해지면 의료관광객들은 주변국으로 발걸음 돌릴 것 -9.11 테러로 인해 크게 손상되었던 미국 관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수 년 간 쏟았던 노력 물거품 될 수도	IMTJ	2017.3.7	Link
14		러시아	러시아 의료관광의 붐 Medical tourism to Russia is booming	-러시아에서 해외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술은 불임 치료와 치과 -약 44%의 해외 환자들이 치과 예약을 잡을 정도이며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가이드 투어 중간에 치과진료 순서가 있을 정도	Russia Beyond the Headlines	2017.3.10	Link
15		CIS	2016년 CIS 국가들의 의료관광 트렌드 MEDICAL TOURISM TRENDS IN THE CIS IN 2016	*주요 CIS국가들 현황 -러시아연방과 벨로루시 CIS 시장의 57%를 차지하며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독일과 이스라엘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신뢰도와 서비스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이스라엘을 선호하며 일반검진, 항암치료, 성형 등 다양한 시술이 가능한 해외로 향함 -카자흐스탄 35%의 환자들이 한국으로 향하며 터키로 19%, 독일로 18%, 인도로 10% 향하는 추세 주로 항암치료, 신경계, 성형수술을 위해 해외로 향함	IMTJ	2017.3.7	Link

2017년 3월 3주차 (2017.3.14 - 2017.3.20)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정부 -관광홍보 사절단,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대 규모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홍보 (1번 기사) -중국 한한령 위기에 러시아가 적절한 대체시장으로 꼽힘 2. 대구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 통역사 협동조합' 설립 (2번 기사) -대구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가 의료관광서비스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청 인증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어 최고 6000만원의 운영비를 최장 10년간 지원 받을 수 있게 됨 (3번 기사) 3. 부산 -여행사, 음식점, 관광버스 등 여행관련 업종과 대중국 수출피해업체 등을 대상으로 350억원의 특례보증 지원하기로 결정 (6번 기사) -부산발전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동향과 부산의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정책방향과 과제 제시 (7번 기사)
	해외	1. 인도 (8번 기사) -국제헬스케어조사센터의 세계의료관광지표에서 세계 5위, 아시아 2위 국가 선정 2. UAE (9번 기사) -두바이를 찾은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받은 시술 분야 4가지: 정형외과(34%), 치과(29%), 안과(18%), 불임치료 -두바이 의료관광 전문 웹사이트인 DHX(http://dxh.ae/)와 앱을 통해 전세계 의료관광객들이 두바이 내 42개의 검증된 사립,국립 병원을 예약할 수 있음 3. 터키 (10번 기사) -최근 터키 내 상황으로 인해 터키 찾는 유럽 여행객 수는 줄어든 반면 성형수술 위해 터키를 찾은 유럽 의료 관광객 수는 2017년 1-2월 동안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의료 관광·평창 올림픽 관심 많아요"	-관광홍보 사절단,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대 규모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홍보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이 한국여행상품 판매를 중단해 우리 관광업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적절한 대체시장으로 꼽힘 -올해는 유가도 오르고 환율에 대한 적응도 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 올 것 기대 -평창동계올림픽과 의료관광이 화두 평창올림픽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 전화나 문의가 매우 많이 들어옴 러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로봇수술,복강경 수술 같은 한국의 선진의료 수준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	KBS NEWS	2017.3.15	Link
2		대구	의료관광객 유치·통역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아	-대구시,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 통역사 협동조합'을 설립,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섬 -시와 대구의료관광진흥원은 최근 대구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에서 지역의 다문화가정 여성, 내국인 통역사로 구성된 중국어, 일본어, 다국적권 등 3개팀 16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 -지역의 다문화가정 여성과 내국인 통역사들을 활용한 시스템을 갖춰 일자리 제공하고 자체 통역 코디네이터 부족한 병원에 의료관광 전문통역사를 공급, 의료관광객 유치와 통역 일자리 창출에 모두 도움 될 것 기대 -조합원 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의료 전문지식, 서비스 마인드 교육 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과 현장실습 등 진행할 방침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실 무상임대와 기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 -상반기 내 협동조합을 해외 의료환자 유치업체로 등록시킨다는 복안도 있음	파이낸셜뉴스	2017.3.15	Link
3		대구	대구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전국 최초 창업 보육센터로 지정	-대구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가 의료관광서비스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청 인증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됨 -의료관광산업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평가등급에 따라 최고 6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시는 이를 활용해 향후 ICT 융복합 의료서비스와 헬스케어, 웰니스 기기 등 다양한 의료산업 분야의 창업자를 폭넓게 지원할 계획	매일경제	2017.3.20	Link
4		인천	['中, 단체관광 금지령' 인천 비상]1회성 탈피 의료관광 '긴급처방' 필요	-지난해 3월 중국 아오란그룹 직원 6천명 방문 이후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유치에 당장 불똥 -시는 올해 9건의 중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가운데 3건(약 1만8천명)이 일정을 미뤘고, 3건(약 6천명)은 보류된 상황 -시는 지난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해 개최할 예정이던 '왕홍 초청, 한국 의료관광 체험행사'를 '왕홍' 섭외가 어려워지자 취소 -5월 19~21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의료관광박람회'에도 경기 수원 등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참가할 계획이었지만, 참가 여부 재검토 중	경인일보	2017.3.16	Link
5		인천	"이제는 평창이다" 인천의료관광, 러시아 시장 노크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지사와 공동으로 14~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2017 모스크바 국제관광전(MITT 2016)에서 한국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며 인천의료관광 홍보 주력 -공사는 한국관광공사, 강원도청, 서울관광마케팅, 성남시청, 대구의료관광진흥원과 공동으로 '한국의료관광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국관광홍보관 운영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방문객을 인천 관광으로 연계되도록 '공항이 있는 도시 인천'을 주제로 홍보함	국민일보	2017.3.15	Link
6		부산	부산시, 사드피해 여행·수출업체 350억 특례보증	-올해 크루즈로 부산 입항 예정이었던 56만명 중 76.7%인 45만명이 중국인이었는데 중국의 한한령에 직격탄 -부산시는 여행사, 음식점, 관광버스 등 여행관련 업종과 대중국 수출피해업체 등을 대상으로 350억원의 특례보증 지원하기로 결정 -추후 사태가 악화될 경우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2017.3.16	Link
7		부산	"부산, 스마트 헬스케어 메카로 키우자"	-부산발전연구원은 20일 BDI 정책포커스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동향과 부산의 정책방향' 보고서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정책방향과 과제 제시 -스마트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장소 제약없이 개인별 건강상태 모니터링·관리, 맞춤형 의료 등을 하는 서비스나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은 제조업, 통신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융복합산업,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으로 성장이 가속화할 전망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육성은 장기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부산시, 지역 금융기관, 운영회사 공동 출자에 의한 지역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지원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파이낸셜뉴스	2017.3.20	Link
8	해외	인도	인도, 세계의료관광지표에서 세계 5위, 아시아 2위 국가 선정 India ranks 5th on Medical Tourism Index globally; 2nd in Asia	-인도, 국제헬스케어조사센터(International Healthcare and Research Centre)의 세계의료관광지표 (Medical Tourism Index)에서 세계 5위, 아시아 2위로 선정 -인도가 의료 인프라, 기술, 서비스 발전에 초점 맞추어 미래의 의료관광 선도국으로 부상할 것 보여주는 결과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의 의료관광객들이 인도를 찾고 그 뒤를 이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CIS 국가들의 의료관광객들이 주를 이룸	TravelBiz	2017.3.20	Link
9		UAE	의료관광객들이 두바이를 찾는 이유 WHY MEDICAL TOURISTS GO TO DUBAI	-두바이의 26개 사립,국립 병원 조사 결과 두바이를 찾은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받은 시술 분야: 정형외과(34%), 치과(29%), 안과(18%), 불임치료 -두바이보건국(DHA)은 2015년 국내외 총 630,831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했고, 이 중 298,359명은 UAE 외의 국가로부터 온 의료관광객이었다고 발표 -두바이 의료관광 전문 웹사이트인 DHX(http://dxh.ae/)와 앱을 통해 전세계 의료관광객들이 두바이의 42개 검증된 사립,국립 병원을 예약할 수 있음	IMTJ	2017.3.20	Link
10		터키	성형수술 위해 터키 찾는 유럽 의료관광객 수 20% 증가 The Number of European tourists traveling to Turkey for plastic surgery up by 20 pct	-최근 터키 내 상황으로 인해 터키 찾는 유럽 여행객 수는 줄어든 반면 성형수술 위해 터키를 찾은 유럽 의료 관광객 수는 2017년 1-2월 동안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의료관광객이 터키 방문	Daily Sabah Tourism	2017.3.19	Link

2017년 3월 4주차 (2017.3.21 - 2017.3.27)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인천, 3700여명 태운 영국 선적 '퀸메리 2호'와 미국 크루즈션 '크리스털 심포니' 인천 입항 방한 크루즈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방문이 대거 취소된 상황에서 초대형 크루즈의 한국 방문은 의미가 큼 2. 보건복지부 추진 '2017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평가' 건강검진(제주), 평창올림픽 활용 스포츠 의학(강원), 불임치료(서울 강서구), 호흡기 질환치료(충북), 암 등 중증 복합치료(충남), 양·한방 통합의료치료(전북), 임플란트(광주), 종합검진(대전) 등 선정 13개 시도 13개 사업 선정하여 총 20억원 이상 투자 3. 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국인 암 치료 '최우수 병원' 선정 한국의료관광협회가 주최한 '2017 한국의료관광서비스 인증대상'에서 외국인 환자 암 치료 부문 '대상' 수상 지난해에만 러시아·카자흐·우즈벡·키르기스스탄·몽골·중국 등지에서 1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 방문
	해외	1. 멕시코 의료관광, 오바마케어 종료 이후 더욱 각광 받을 것 미국의 새로운 헬스케어 정책은 2026년까지 약 2천 4백만명의 미국인들을 무보험자로 만들 것으로 예측 지금도 멕시고 국경 지역은 수많은 외국인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으며 매년 약 백만명의 외국인 환자들이 방문함 2. 인도, 오만 의료관광객을 잡기 위해 비자 수수료 낮춤 오만 국민들 사이에서 인도의 관광, 사업, 의료관광 등이 인기를 얻고 있어 2016년 9만 5천건정도였던 비자 발급이 2017년 첫 두 달간 이미 2만건이 넘음 인도의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4월부터 의료비자 발급 수수료를 낮추고 별도의 발급 창구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전국	중국인 환자 줄자 성형외과도 '휑'‥관광의료의 폐해	*한국 의료관광의 문제점 1. 사망 사건 2015년 코,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사망한 일본인, 쌍꺼풀, 턱 수술을 받고 사망한 중국인, 2016년 코 성형 받던 중 사망한 태국여성 등의 사건들이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상승 2. 해외 고객에게 비싼 비용 한국고객에게는 여러 할인 이벤트와 특가를 내세우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간단한 수술조차 몇배 이상의 가격을 부르는 이른바 '바가지 상술 *대안 -여태까지는 성형에 대한 지나친 홍보가 이뤄졌지만, 전반적인 한국의 의료기술이 함께 돋보일 수 있는 전략 마련되어야 함 -동남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권에서도 한국의 의료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진료과목과 대상국가에 대한 홍보 필요	메디파나뉴스	2017.3.27	Link
2		인천	인천, 3700명 탄 영국 크루즈선 맞는다… 유커 급감한 자리 다변화로 채우기	-영국 선적의 14만8000t급 크루즈인 '퀸메리 2호'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승객과 승무원 등 3700명을 태우고 27일 오전 8시 인천항에 입항 크루즈에 탑승한 승객은 영국인이 920명으로 가장 많고 호주 454명, 미국 210명, 일본 140명 등 2500여명의 관람객과 1200여명의 승무원이 탑승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하루 동안 인천과 경기, 서울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 -30일에는 미국 선적 5만t 크루즈선 '크리스털 심포니'도 한국에 첫 입항 예정 -방한 크루즈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방한이 최근 대거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형 크루즈의 한국 방문은 의미가 큼	국민일보	2017.3.26	Link
3		제주도	제주 의료관광 사업 정부 2017년 의료기술 육성사업 포함	-제주도가 추진하는 '동북아 웰니스 의료관광 중심도시 제주(건강검진)' 사업이 2017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에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2017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평가에서 14개 시도에서 22개의 사업을 신청받아 최종 13개 시도의 13개 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제주도 포함 -선정된 사업은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스포츠 의학(강원), 불임치료(서울 강서구), 호흡기 질환치료(충북), 암 등 중증 복합치료(충남), 양·한방 통합의료치료(전북), 임플란트(광주), 종합검진(대전) 등 -이들 사업은 사업별로 국비 10억원, 지자체·민간 10억원 이상 매치한 총 20억원 이상이 투자됨 -보건복지부는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이 의료 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유치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기대	제민일보	2017.3.27	Link
4		경남	경남도, 지역선도 의료관광 육성사업 선정	경남도, '지역우수 외과 의료기술을 이용한 우즈베키스탄 의료관광 인프라구축 및 지역 의료산업 활성화' 사업, 정부사업(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되어 1억원의 국비 지원받게 됨	경남일보	2017.3.27	Link
5		동남권	부울경, 동남권 관광·의료 교류협력 강화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동남권관광협의회는 최근 울산박물관에서 시·도 회원, 관광국장 등 20여명 참석해 '2017년 정기회의'를 열고 2016년 사업 결산과 2017년 공동사업계획을 논의 -부산·울산·경남을 광역관광체계로 구축해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하고 관광투어 코스 공동 발굴 위해 지난 2001년 7월 12일 출범한 동남권관광협의회는 지난해 중국·독일 여행사 관계자 15명 초청 팸투어 실시했으며 8차례 K트래블버스 동남권 운영을 통해 130명의 관광객을 유치함 -서울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한 해외업체 관계자 18개국 43명을 초청해 홍보하고 베트남·말레이시아 관광청 방문, 동남권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힘씀 -올해는 2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말레이시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해 동남아시아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세일즈 콜, 동남권 관광협의회 PT자료 및 홍보물 제작, 동남권 트래블버스 상품 운영, 주요 축제 동남권 관광 홍보관 운영 등 6개 사업 추진 -특히 중국의 금한령에 따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세일즈 마케팅을 강화하고 부·울·경 연계상품 개발해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할 계획	파이낸셜뉴스	2017.3.26	Link
6		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국인 암 치료 '최우수 병원' 선정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한국의료관광협회가 주최한 '2017 한국의료관광서비스 인증대상'에서 외국인환자 암 치료 부문 '대상' 수상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해외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 환자들이 많이 찾음 -지난해에만 러시아·카자흐·우즈벡·키르기스스탄·몽골·중국 등지에서 1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 방문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해외 20여 곳에 구축한 순천향 영상협진센터를 통해 입·출국 전후로 철저한 환자 관리 실시하며, 다양한 언어 구사하는 코디네이터가 각 환자를 밀착 관리해 입원·검사·치료·한국생활 적응 도움 -러시아 전통춤 공연, 현지 음식 제공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로 호평 얻음	Doctors News	2017.3.27	Link
7	해외	멕시코	멕시코 의료관광, 오바마케어 종료 이후 더욱 각광 받을 것 A boom in medical tourism to Mexico predicted if Obamacare ends	-Nogales와 같은 멕시고 국경 지역은 수많은 외국인 환자들로 북적임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등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 멕시코 방문 -미국 내 정권 교체로 인한 의료보험 관련 정책 변화로 많은 미국인들이 저렴한 의료 시술을 위해 멕시고 찾음 미국의 새로운 헬스케어 정책은 2026년까지 약 2천 4백만명의 미국인들을 무보험자로 만들 것으로 예측됨 -그 결과 멕시코의 의료관광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매년 약 백만명의 외국인 환자들이 방문함 심장 수술부터 암 치료, 불임 치료 등 다양한 범위의 시술을 받음	Yahoo NEWS	2017.3.22	Link
8		인도	인도, 오만 의료관광객을 잡기 위해 비자 수수료 낮추기로 India attracts Omani visitors with reduced visa fees	-인도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오만 국민들 사이에서 인도의 관광, 사업, 의료관광 등이 인기를 얻고 있음 2016년 비자발급은 9만 5천건정도인데 2017년 첫 두 달간 이미 2만건이 넘음 -인도의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4월부터 의료비자 발급 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 유효기간 6개월의 의료비자 신청자는 약 80달러를, 1년 의료비자 신청자는 약 120달러를 받을 것 -의료비자는 별도의 발급 창구를 열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할 것	TTN	2017.3.27	Link

gagaon net

*뉴스클리핑 담당: 방미환 사원

2017년 4월 1주차 (2017.3.28 - 2017.4.3)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인천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3월 15일부터 한달 간 러시아 및 시베리아 지역의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시간에 인천의료관광 광고 진행 (2번 기사)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수출기업에 500억 경영자금 지원 (3번 기사) 2. 부산 -SNS로 불법 태국인 의료관광객 유치한 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이모씨와 성형외과·피부과 적발 (5번 기사) -고신대복음병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내 부산크루즈의료관광지원센터와 크루즈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6번 기사) 부산에 입항하는 크루즈선박에 원격 진료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국제여객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으로서 블루오션인 크루즈 의료관광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
	해외	1. 중국 (7번 기사) -하이난섬이 외국인들에게 저렴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특별 경제 구역으로 설계될 예정 줄기 세포 실험 등 다른 지역에서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의료 실험들을 위한 독립된 규제 제도 운영할 것 2. 필리핀 (8번 기사) -매년 20만명의 의료관광객들이 향하는 의료관광지인 필리핀 그러나 직항 비행 노선 부족, 낙후된 공항 시설, 전문 의료 인력 해외 유출 등의 문제로 인해 난항 겪는 중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서울 (강서)	강서의료관광특구사업',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선정	-서울 강서구의 미라클메디특구(의료관광특구) 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7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됨 -불임치료와 산부인과 분야 특화기술을 핵심기술로 내세워 보건복지부 심사 통과 -강서구는 국비 지원 금액 1억원을 받게 되며, 특화의료기술개발,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마케팅 비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	뉴시스	2017.3.29	Link
2		인천	러시아 극동 · 동시베리아 극장에서 인천의료관광을 만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3월 15일부터 한달 간 러시아 및 시베리아 지역의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시간에 인천의료관광 광고 진행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 지사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광고는 아외 활동이 적은 시기에 극장에서 영화 관람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꼽는 러시아인의 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극동 및 동시베리아지역 극장에 인천 의료관광 광고 상영을 기획하였으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아쿠치아의 4개 도시 5개 극장 18개 상영관에서 총 3,300여회 상영될 예정 -광고 내용은 인천의 관광지, 체험, 먹거리, 쇼핑, 치료, 힐링 등 인천을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향후 러시아 현지 언론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광고,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속적인 관리 및 동시베리아지역 신규 지역 개척을 위해 노력할 계획	아주경제	2017.3.29	Link
3		인천	인천시, 중국 사드보복 피해 수출기업에 500억 경영자금 지원	-인천시가 중국발 사드 보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경제 현안 종합 대책으로 '지역경제현안종합대책'을 수립, 경제정책과 산업통상, 문화관광체육, 의료·위생, 항만·공항·물류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드 관련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 -중국발 투자 철회, 통관 지연 등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지원 -지원 규모는 업체당 7억 원 이내로 기업의 경영 정상화 자금을 은행 협조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	중부일보	2017.4.3	Link
4		인천	인천관광공사, 인천의료기관과 이르쿠츠크 국제관광박람회 바이칼투어 참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지사와 공동으로 3월 29-31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국제관광박람회 '바이칼 투어'에 참가하여 인천의료관광 홍보부스 운영 -동시베리아 신규 의료웰니스관광 시장 개척 및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인천관광공사는 부평힘찬병원, 인하대병원, 인하국제의료센터와 함께 '한국의료웰니스홍보관'에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지역의 주요 의료관광 에이전시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천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의료상품을 판매 -올해로 20회 맞는 시베리아 국제관광박람회 '바이칼투어'는 시베리아지역 최대 관광박람회로서, 금년에는 한국에서 19개 대형병원, 전문여행사 등이 참가 -러시아에서 연간 20만명 이상의 일반 관광객과 약 1,600명의 의료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하는데,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은 한국에 우호적이고, 극동·시베리아지역을 중심으로 K-pop, 드라마 등 한국 문화와 한국의 높은 의료수준에 관심이 많은 만큼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	아주경제	2017.3.31	Link
5		부산	SNS로 불법 의료관광객 유치 브로커와 성형외과·피부과 적발	-결혼이주여성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소개받은 병원이 적발됨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김모(37)씨와 피부과 의사 최모(3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태국인 의료관광객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료를 챙긴 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이모(35·여)씨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알선료 4000만원을 주고 이씨로부터 소개 받은 태국인 의료관광객 260여명 상대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적발된 병원 중 한 곳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영업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됨	메디컬투데이	2017.4.2	Link
6		병원	크루즈 원격진료 장치 도입 '첫발'	-고신대복음병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내 부산크루즈의료관광지원센터와 크루즈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지원센터는 부산관광공사로부터 한국크루즈의료관광협의회가 위탁받아 운영 중 크루즈승무원의 휴게시설을 겸하면서 부산 의료관광의 장점을 크루즈선사 및 승무원에게 알리고 기항지관광 상품으로 의료관광을 접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고신대병원은 이미 카자흐스탄에 원격 진료장치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부산에 입항하는 크루즈선박에 원격 진료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첫발을 뗀 것 -국제여객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의 장점 살려 블루오션인 크루즈 의료관광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 -올해 사드여파로 중국인 승객을 태운 크루즈는 입항취소가 계속되는 반면 주로 일본인과 대만인 고객 태우고 올해 31회 부산을 준 모항으로 입항하는 코스타네오로만티카(Costa Neo Romantica)호를 대상으로 함 -이 크루즈는 1천800여 명 승객이 탑승할 예정으로 일본인 승객 80%, 부산에서 한국 승객 20%, 5박 6일 일정의 크루즈 상품으로 내년에는 50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부산시도 6월과 7월 '크루즈의료관광 설명회 방문단'을 이끌고 일본 및 대만크루즈에 승선해 부산으로 오는 선상에서 이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산의료관광 크루즈 상품 홍보 설명회 및 전문의상담 등 의료상담과 비즈니스상담 할 예정	경남매일	2017.4.2	Link
7	해외	중국	중국, 하이난 섬을 "의료관광" 특별 경제 구역으로 선정 China announces "medical tourism" special economic zone on Hainan Island	-하이난섬이 외국인들에게 저렴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특별 경제 구역으로 설계될 예정 -줄기 세포 실험 등 다른 지역에서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의료 실험들을 위한 독립된 규제 제도 운영할 것 -9개의 우선권 제도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 허가, 의료 기술, 장비, 약 등의 특별 허가 등 혜택 제공 -2013년 중앙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약 12억 달러의 투자를 바탕으로 4년간의 파일럿 제도를 통해 준비됨	boingboing	2017.4.3	Link
8		필리핀	의료관광지로서의 필리핀 PHL as medical tourism destination	-세계 주요 의료관광지 중 한 곳으로 부상한 필리핀 매년 200,000명의 의료관광객들이 필리핀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 -필리핀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들 1) 필리핀 직항 비행 노선 부족 2) 낙후된 공항 시설 3) 높은 연봉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전문 의료 인력	BusinessMirror	2017.3.29	Link

2017년 4월 2주차 (2017.4.4 - 2017.4.10)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올해 1분기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37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 증가 (1번 기사) 중국 관광객이 9% 감소했지만, 일본, 동남아, 중동 관광객 등 다른 지역에서 14% 증가했기 때문 2.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명동에 한의약 홍보체험관 개관 (2번 기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더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하기 위해 개관 3. 제주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해외 파워 블로거인 캐서린 리 초청, 한국 의료 및 제주 의료관광 체험 행사 진행 (3번 기사) 캐서린 리는 홍콩,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영화, 드라마, CF 활동을 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에서 20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음 4. 대구시, '글로벌 의료허브 메디시티, 대구'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육성사업에 응모해왔으며 전국 최다 선정됨 (5번 기사) 올해는 에필성형외과와 연계하여 '안구돌출 교정기술'을 응모해 최종 선정됨
	해외	1. 독일 의료관광 정체기 (7번 기사) 2015년에는 177개국에서 255,000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였고 약 12억 유로의 관광수익을 가져왔지만 큰 시장을 형성해 온 러시아 환자는 32.4% 감소 2.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최초 의료관광 트레이드 페어인 "InterCare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Exhibition" 개최할 예정 (8번 기사) 의료관광객 송출국에서 의료관광 목적지로 부상하기 위한 움직임 3. 인도, 여전히 걸림돌 되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문제 (9번 기사) 2014년 의료관광객의 166% 증가를 경험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인도이지만 의료비용, 숙소, 교통 등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유커 절벽… 일본·대만·동남아 관광객 몰려오기 시작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37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 증가 중국 관광객이 9%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14%가 증가했기 때문 -일본 관광객이 61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21% 늘면서 성장세를 견인했고, 동남아·중동 관광객은 61만7000명으로 12% 증가했으며, 홍콩·대만·마카오·몽골 관광객은 39만4000명으로 13% 증가함 -정부는 최근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제주행 환승 단체 관광객에게 15일간 무(無)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함 이전까지 전자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는데 이번에 동남아 관광객 공략의 일환으로 확대한 것 *전자비자: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 현지 한국 공관을 방문하는 대신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조선비즈	2017.4.7	Link
2		정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에 한의약 홍보체험관 개관	-명동에 한의약 홍보체험관 개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 방문 외국인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해 개관 -'한의약 홍보체험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방 진료체험, 한방 강좌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SNS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환자유치에 기여하고자 구축	메디컬투데이	2017.4.5	Link
3		제주도	한국 의료관광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중화권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위해 해외 파워 블로거를 초청, 제주에서 7일부터 9일까지 한국 의료 및 제주 의료관광 체험 행사 진행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파워블로거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캐서린 리 홍콩,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에서 영화, 드라마, CF 활동을 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에서 20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음 -캐서린 리는 제주 의료관광을 체험하면서 본인이 느낀 바를 웨이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등록해 그녀의 팔로어들과 공유할 것 캐서린 리의 체험 활동은 동영상, VR영상으로 제작돼 한국의료 및 제주 의료관광 홍보 컨텐츠로 활용될 예정	의학신문	2017.4.7	Link
4		인천	인천의료관광, 융·복합 특화상품 만든다	-인천관광공사, 6일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 콘텐츠를 연계한 융·복합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석모도 의료.웰니스 콘텐츠 상품개발 팸투어' 개최 -석모도는 작지만 아름다운 섬으로 갯벌체험과 주변 경관이 뛰어난 민머루해변, 천혜의 자연환경 수목원, 최근 개장한 석모도 미네랄 온천 등 빼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가볼만한 명소가 많음	중부일보	2017.4.7	Link
5		인천	대구시, 복지부 의료관광지원사업 선정	-대구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2017년 해외환자유치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에서 지역 의료관광 선도기관인 에필성형외과의 '안구돌출 교정기술'을 응모해 최종 선정됨 -특히 대구시는 '글로벌 의료허브 메디시티, 대구' 조성을 위해 매년 육성사업에 응모했으며 전국 최다 선정됨 △2010년 모발이식 전용센터 구축(경북대병원) △2011년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조성(경북대 등) △2012년 구순구개열 및 재건성형(동산의료원) △2013년 대장항문 질환 치료(파티마병원) △2014년 호흡기질환 치료(영남대의료원) △2015년 관절·류마티스 질환 치료(대구가톨릭대의료원) △2016년 미세침습 암치료기술과 IT융합센터(경북대병원) -안구돌출은 눈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경우로 갑상선 질환 치료와 미용목적으로도 수술이 진행되며 1인당 수술비가 3천만원 정도로 외국인환자 유치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대구시는 에필성형외과와 연계해 잠재수요가 큰 인도·아랍권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예정	대구신문	2017.4.4	Link
6		전남	화순전남대병원-도문화관광재단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박차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의료·웰니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전남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기관은 의료·웰니스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과 관련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함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8월 전남도로부터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추진 중 중국·몽골 등지에서 현지설명회 개최, 의료기관·여행사 대상 팸투어 진행, 의료통역 인력 양성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진행 중	이데일리	2017.4.7	Link
7	해외	독일	독일 의료관광 관련 통계 GERMAN MEDICAL TOURISM STATIC	-독일 의료관광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 -2015년에는 177개국에서 255,000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였고 약 12억 유로의 관광수익을 가져왔지만 큰 시장을 형성해 온 러시아 환자는 32.4% 감소 -러시아 내의 의료 서비스 비용이 매우 높아 해외로 향할 수 밖에 없는 러시아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터키로 갈 수 없게 되어 독일로 더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 있음 그러나 러시아 경제의 2017년 전망이 좋지 않아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 -독일은 앞으로 기존 시장 뿐 아니라 유럽 안과 중동 시장을 더 공략할 계획	IMTJ	2017.4.10	Link
8		이탈리아	밀라노, 이탈리아 최초의 의료관광 트레이드 페어 계최할 예정 MILAN TO HOST ITALY'S FIRST MEDICAL TOURISM TRADE FAIR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최초의 의료관광 페어 'InterCare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Exhibition' 개최 예정 -이탈리아는 주로 환자 송출국이었기에 이탈리아 내의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새로운 의료관광 주요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개최 -2012년 이탈리아 내에서는 해외 의료관광 붐이 일었는데 주로 치과, 성형, 불임치료 등을 위해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의 국가로 향함 -2015년 이탈리아를 방문한 해외환자는 약 5000명 정도로 러시아, 스위스, 알바니아 등 국가에서 주로 방문한 것으로 집계 됨	IMTJ	2017.4.7	Link
9		인도	낮은 의료비용이 부추기는 의료관광, 그러나 여전히 바가지 씌운 가격으로 인해 불안한 해외환자들 Lower hospital bills fuel medical tourism, but patients swallow bitter pill of local fleecers	-2014년 의료관광객의 166% 증가를 경험한 인도 인도 의료비자 발급은 2014년 75,688에서 2016년 201,333으로 큰 폭 증가 -이러한 놀라운 성장 뒤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해외 환자들 존재함 의료비용, 숙소, 교통 등 여러 부문에서 바가지 씌우는 높은 가격 때문에 불안해하는 다수의 해외 환자들 -이러한 약점을 잘 다듬어서 해외환자들이 인도 의료관광의 시작부터 끝까지 질 높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컨시어지 필요성 제고	The Times of India	2017.4.8	Link

2017년 4월 3주차 (2017.4.11 - 2017.4.17)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정부 1) 한국관광공사, 19-2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는 '2017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KITF)' 참가 예정 (1번 기사) '한국의료관광 홍보관'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 의료기관 20개소와 유치업체 5개소, 관광업체 등 총 3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 2) 8-9일 하노이에서 열린 '2017 한국문화관광대전'의 한국의료관광 부스에 현지인들이 몰려 큰 관심을 보임 (2번 기사) 최근 한국에서 성형 위해 30일짜리 의료관광비자(C-33) 신청하는 베트남인들이 급증 중 3)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이 직접교류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월베메' 오픈 (4번 기사) 외국인환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보고 의료기관 스텝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 2. 대구 '메디시티 대구`가 3년 연속 의료도시 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됨 (5번 기사)
	해외	1. 중국 (8번 기사) 지난 7년간 의료관광 특구 하이난섬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약 80만명 약초, 침술 등의 전통 중국 의술(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 대한 세계의 관심 이용하여 인기 의료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 2. 미국 (9번 기사)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이 해외 의료관광 고려 중 자국에서 받을 수 없는 보험 혜택, 관광과 결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약 29%의 미국인들이 해외 의료관광 고려 중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한국관광공사, 중앙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개척에 박차	-한국관광공사, 19-2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는 '2017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KITF)' 참가 예정 -관광공사 주관으로 운영되는 '한국의료관광 홍보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 의료기관 20개소와 유치업체 5개소, 관광업체 등 총 37개 기관이 참여 -내방객 대상 의료관광 비즈니스 상담 및 의료관광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한국의료관광 상품 소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홍보부스 운영에 참여해 한국의료기술 홍보설명회를 병행 개최 예정 -2016년에는 18개 국내 의료기관, 6개 유치업체 등 34개 기관이 참가해 상담 1780건, 진료예약 214건으로 의료관광 수입 약 10억원을 창출한 바 있음	아주경제	2017.4.18	Link
2		정부	사드보복 中 대신 베트남에 몰리는 한국뷰티업계…"여기가 활로"	-8-9일 하노이에서 열린 '2017 한국문화관광대전'의 한국의료관광 부스에 현지인들이 몰려 큰 관심을 보임 -최근 한국에서 성형하기 위해 30일짜리 의료관광비자(C-33)를 신청하는 베트남인들이 눈에 띄게 증가 중 -경기도와 킨텍스는 6월 15~17일 베트남 남부 최대도시 호찌민에서 화장품과 헤어케어, 미용도구, 성형기술 등 한국의 미용산업 마케팅을 위한 박람회 'K 뷰티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	연합뉴스	2017.4.13	Link
3		정부	협동조합도 융합…과별·직역 넘어선 'KOGHA' 안착	-KOGHA는 지난 2016년 3월 창립한 단체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발표하자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사업을 위해 만들어짐 -조합원 구성은 병·의원, MSO, 의료관광 에이전시, 미용성형, 화장품, 의료기기, IT, 비즈니스관련사 등 54개사 -조합사의 비즈니스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4월 27일 'KOGHA Networking day' 개최 예정 조합사의 주요 추진 활동 비즈니스를 회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참석하는 조합사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각 사의 역량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메디파나뉴스	2017.4.15	Link
4		에이전시	외국인환자-의료기관 연결해주는 플랫폼 '월베메' 선보여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이 직접교류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월베메' (www.worldbestmed.com) -대부분의 의료관광 전문사이트들은 의료기관의 단순 정보만 노출 시킬 뿐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상호 교류를 지원하지 않지만, 월베메는 외국인환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보고 의료기관 스텝과 직접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도 외국인환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바로 파악 가능 -의료기관이 알리고 싶은 홍보자료를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고, 스텝들이 외국인환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도 상담노하우 축적이 가능한 장점 있음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유치업체 등,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외국인환자가 내원하면 유치수수료 지급 -그동안 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일산백병원, 우리들병원, 365mc 등 약 15개 의료기관들과 테스트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청년의사	2017.4.13	Link
		대구	메디시티 대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메디시티 대구`가 3년 연속 의료도시 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됨 -`20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지난 2015년과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의료도시` 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수상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지난 2016년 사드 변수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해마다 30%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의료관광객 2만5천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대구시는 의료관광 기반구축과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를 착공하고 현지 합작병원 설립과 해외거점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 -의료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위해 의료관광 신흥 수요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국가를 포함해 동남아, 일본과는 현지 에이전시 의료관광 마케팅을 추진하며 미국, 캐나다와는 교포대상 의료관광을 추진할 계획	경북매일	2017.4.18	Link
5		서울 (강남)	일본인 한류전도사 유향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대사 되다	-일본인 한류전도사 유향(YUKA NAKAHARA)이 제1호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됨 -강남구는 일본인 의료관광 신시장 개척과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를 위해 12일 일본인 유향을 제1호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최근 중국의 한한령과 단체관광 금지 등의 제재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급감해 의료관광 시장 다변화와 선진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강남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됨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활약할 재일교포 4세인'유향'은 (사)한일미용친선협회 대표이사 및 설립자로 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학 홍보대사를 역임해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한의학 행사(2016 Korea Medicine Project in Japan)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음 -일본 상류층 내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 일본 의료관광객에게 강남구 의료관광의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	아시아경제	2017.4.13	Link
6		충북 (청주)	하늘길 열린 청주~러시아 대전의료관광 활성화 되나	-청주공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개설됨 -운항기간은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블라디보스토크는 1시간 20분, 하바로프스크는 2시간 10분 소요 -지역 의료계는 러시아 의료관광객은 청주직항 노선이 없었던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번 취항 이후, 의료관광객 수가 급속도로 늘 것으로 기대 중 -특히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은 주로 높은 비용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시장 활성화의 지렛대가 될 전망	금강일보	2017.4.10	Link
7	해외	중국	새로운 인기 의료관광지로 부상하는 중국 China emerges as next global medical tourism hotspot	-지난 7년간 의료관광 특구 하이난섬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약 80만명 -이 중 약 80%가 중국 전통 테라피를 받음 -서양식 의료가 무세한 가운데 약초, 침술 등의 전통 중국 의술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 대한 세계의 관심 증가 중 -하이난섬을 중심으로 중국을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과 의료부문 발전 도모할 것	China Daily	2017.4.11	Link

9		미국	시니어 세대가 해외 의료관광을 가기 전 알아야 할 것들 What Seniors Need to Know Before Having Surgery Overseas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이 해외 의료관광 고려 중 -Gallup poll 통계자료에 따르면 약 29%의 미국인들이 해외로 나가 심장, 무릎, 성형 수술, 암 진단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고려 중 -가장 큰 이유는 자국에서 받지 못하는 보험 혜택, 관광과 결합 가능성 등으로 조사됨 -대략적인 국가별 비용 절감 범위 브라질: 20-30% 코스타리카: 45-65% 인도: 65-90% 말레이시아: 65-80% 멕시코: 40-65% 싱가폴: 25-40% 한국: 30-45% 대만: 40-55% 태국: 50-75% 터키: 50-65%	Medical Tourism Magazine	2017.4.12	Link

2017년 4월 4주차 (2017.4.18 - 2017.4.24)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한국관광공사, 카자흐스탄 중심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 중 (1번 기사)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수입이 전년대비 74.7% 증가한 것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환자 유치 위해 현지에서 노력 나섬 2. 대구 (4번 기사) 18-19일, 대구공항직항노선이 개설되어 있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일반인 및 현지에이전시·단체를 대상으로 대구 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 3. 인천 (6번 기사) 인천시, 부평힘찬병원, 인하대병원은 키르키즈스탄 대통령병원, 국립암병원, 국립정형외과병원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양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을 통한 의료관광 환자들의 인천 유치 가능성 타진
	해외	1. 인도 (7번 기사) 인도의 의료관광산업은 22-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는 현재 30억 달러 수준에서 2018년에는 두배인 6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 2. UAE (9번 기사) 두바이는 2020년까지 5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과 세계 의료관광지 탑 15위 안에 선정되는 것이 목표 2016년 4월 론칭한 '두바이 헬스 익스피리언스 [DXH]' (http://dxh.ae/) 통해 외국인 환자들에게 두바이 의료관광 관련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3. 독일 의료관광 에이전시 Booking Health (10번 기사) 2011년 설립된 의료관광 에이전시 Booking Health는 치료, 진단, 재활 관련 서비스뿐 아니라 의료관광 관련 2차 소견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 보장으로 경쟁사들 사이에서 몸값을 올리고 있음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수입…전년대비 74.7% 증가 '유치 집중'	-의료관광 시장에서 중앙아시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 한국관광공사가 현지에서 의료관광 유치 노력에 나섬 -2015년 기준 방한한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로 인한 총 진료수입에서 카자흐스탄은 580억원 전년도 332억원보다 74.7% 증가 -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며 7월 신규 개설 예정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홍보사무소를 통해 국내 의료관광마케팅 기회 제공에 주력할 계획	메디컬투데이	2017.4.18	Link
2		정부	외국인 의료분쟁 성형외과 최다…10건중 6건 중국인이 제기	-최근 5년간 접수된 외국인 의료분쟁은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고 10건 중 6건은 중국인이 제기한 것으로 조사됨 -2012년 이후 중재원에서 진행된 외국인 환자 상담 건수는 598건으로, 이 중 113건이 조정신청으로 접수됨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중 70건(61.9%)을 중국인이 제기했고, 나머지는 미국12건(10.6%), 베트남 5건(4.4%), 일본·캐나다 각 4건(3.5%), 러시아 2건(1.8%) 등 -분쟁 대상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8건, 산부인과 15건, 치과 14건, 신경외과· 내과·외과 각 9건, 비뇨기과 6건, 피부과 3건 순	헤럴드경제	2017.4.18	Link
3		경기도 (안산)	안산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생 30명 모집	-안산시는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가 과정'교육생 30명 선착순으로 모집 -이번 프로그램은 의료관광 마케팅전문가 육성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의료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홍보, 마케팅 및 상품개발 기법 교육을 통해 의료시장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시장 전략 등 포괄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 -2013년부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 중 교육수료 후 프리랜서나 대학병원, 지역내 주요병원에 취업 및 자원봉사 활동 등 구직활동을 돕고 있음 -현재까지 66명의 수료생이 의료관광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함 이들은 지역내 주요병원과 여행사에서 자원봉사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일부는 대학병원에 정규직으로 채용됨	중부일보	2017.4.20	Link
4		대구	대구시, 도쿄·오사카 방문 의료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대구시, 18-19일 대구공항직항노선이 개설되어 있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대구와 관련 있는 현지 인사와 대구 의료관광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현지에이전시·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함 -이번 설명회는 대구공항을 이용한 일본인 관광객('15년 2,895명→'16년 13,265명)의 급속한 증가와 의료관광 대상국가 다변화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됨 -대구시는 직항노선이 있는 도쿄와 재일교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를 전략적인 타켓으로 삼고 한방, 피부 등 진료분야를 선정하여 6개 병. 의원과 연계한 대구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준비해옴 -이틀 간 일반인 120여명과 현지에이전시. 민간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함 -일본인들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성향을 가진 것과 오사카→도쿄 신칸센 이동시 2시간 30분 소요되는데 반해 오사카→대구는 1시간 35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해 홍보할 계획	nsp통신	2017.4.24	Link
5		대구	신보 대경본부, 의료관광 스타트업·中企 지원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 19일 KEB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와 지역 의료관광 창업기업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영업본부 전문컨설턴트를 전용창구로 활용해 KEB하나은행에서 추천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지원을 비롯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대구신문	2017.4.19	Link
6		인천	인천의료관광, 키르키즈스탄으로 시장 확대	-인천시, 18일 부평힘찬병원, 인하대병원과 함께 키르키즈스탄 대통령병원, 국립암병원, 국립정형외과병원 방문 관계자들과 양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을 통한 의료관광 환자들의 인천 유치 가능성 타진 -부평힘찬병원은 드주마베꼬프 국립정형외과 병원 관계자와 현지에 의료진 파견을 통한 진료 방법 논의하고 양 기관의 협력에 관한 MOU 체결 -인하대병원은 아브둘라예프 카자흐스탄 국립암병원장의 요청으로 현지 의료진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 진행 -키르키즈스탄 국립정형외과병원은 2004년에 설립된 의료진 150명, 397병상의 대형병원으로, 다양한 임상 수술 시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의료기관 -키르키즈스탄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인도, 터키, 이스라엘 의료기관으로 의료관광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한국 의료관광에 관심을 갖는 추세로 알려짐	중부일보	2017.4.20	Link
7	해외	인도	인도 방문 의료관광객 25% 증가 Medical tourist arrivals in India up 25%	-인도의 의료관광산업은 22-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는 현재 30억 달러 수준에서 2018년에는 두배인 6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 -인도정부의 비자완화 정책과 짧은 진료 대기시간, 저렴한 의료비용 덕분에 인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 -인도의 Apollo 병원 체인은 2016년과 2017년에 87개국 17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함	Business Standard	2017.4.19	Link
8		인도	인도의 발전을 위한 처방, 의료관광 Medical tourism: Just what the doctor prescribed for India	-2016년 인도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약 9백만명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 -가장 큰 시장인 걸프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인도를 방문한 해외환자수는 2016년 약 17% 증가 -의료관광국으로서 인도의 장점: ·세계적 수준의 의료시설과 최신 기술 보유 ·숙련된 의료진 ·저렴한 시술 비용 ·짧은 대기 시간	wknd	2017.4.24	Link
9		UAE	두바이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의료관광 서비스 New medical rules, amenities for Dubai tourists	-두바이는 2020년까지 5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과 세계 의료관광지 탑 15위 안에 선정되는 것이 목표 -2016년 4월 두바이보건복지부는 '두바이 헬스 익스피리언스 [DXH]' 라는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론칭함 (http://dxh.ae/) -이 사이트를 통해 해외 환자들은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티켓과 호텔등을 예약할 수 있으며 여러 의료보험 관련 정보와 비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 -'Patient Protection Plan(환자 보호 플랜)'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관련 법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 제공	Khaleej Times	2017.4.21	Link
10		독일 (에이전시)	몸값 올리는 독일 의료관광 에이전시, Booking Health GERMAN MEDICAL TOURISM SITE UPS THE ANTE	-2011년 설립된 의료관광 에이전시 Booking Health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에 있는 약 250개의 의료기관과 7만 개 이상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https://bookinghealth.com/) -Booking Health는 치료, 진단, 재활뿐 아니라 의료관광 관련 2차 소견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 보장으로 경쟁사들 사이에서 몸값을 올리고 있음	IMTJ	2017.4.24	Link

2017년 5월 1주차 (2017.4.25 - 2017.5.1)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서울 (1번 기사) 구로구와 고용노동부,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개설 영어 및 모국어 등에 능통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역량 발휘 기대 2. 대구 (3번 기사) 25일 필리핀 수도인 메트로마닐라를 방문, 소방차와 구급차 각 2대를 기증하고 대구 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가졌으며, 필리핀 알베이주 시장단 일행 60여명 5월에 대구 파견하여 의료관광 체험하기로 합의 3. 부산 - 27일 'MEDICAL ASIA 2017, 제10회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글로벌 마케팅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 수상 (5번 기사) -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에어부산이 공동으로 28일부터 몽골 초등학생 9명을 초청해 '부모 상봉 위해 부산가자 프로모션' 진행 (6번 기사) 부산에 체류 중인 몽골근로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팸투어 예정
	해외	1. 의료관광 관련 4가지 트렌드 (9번 기사) 개인의료도시 및 종합병원 부상, 아시아 지역 부상, 의료관광전문가 양성, 새로운 의료관광국 부상 2. 싱가폴 (10번 기사) 아시아출신 환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시장 형성했던 인도네시아 환자들의 감소로 전체적인 해외 환자 감소 겪는 중 3. 일본 (11번 기사) 일본 정부, 헬스케어산업을 미래 주요 경제발전요인으로 뽑고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돌입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서울 (구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결혼이민여성 위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구로구와 고용노동부,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결혼 이민 여성들의 관심 집중 -영어 및 모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우 외국 환자들의 의료진료를 돕는 것은 물론 동반 가족들의 국내 체류, 관광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문가로서 높은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의무, 상담 실무와 의료 상황별 롤플레잉, 진료과목별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 마케팅 및 행정실무, 의료관광 우수병원 답사 및 모니터링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의 전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됨	MTN	2017.4.26	Link
2		경기도 (고양)	리듬체조의 여왕 '마르가리타 마문', 고양시 의료관광홍보대사 자격 시 방문	-세계 리듬체조의 여왕, 마르가리타 마문(23·러시아)이 고양시 의료관광홍보대사 자격으로 7개월 만에 다시 고양시 방문 -리우올림픽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인 마르가리타 마문은 4월 26일 입국해 고양시 관광체험, 가족 건강검진, 유소년 리듬체조교실, 고양국제꽃박람회 투어 등을 통해 고양시 의료관광홍보대사로서 고양시를 국내외에 알릴 예정 -마문 선수가 가족과 함께 고양시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의 환자들에게 신한류 의료관광도시 고양시를 알리게 돼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기대	중부일보	2017.4.27	Link
3		대구	대구시, 필리핀서 공격적인 도시마케팅 성과	-대구시, 필리핀에서 항공노선, 지하철 운영 기술 수출 의료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대구시는 25일 필리핀 수도인 메트로마닐라를 방문, 소방차와 구급차 각 2대를 기증하고, 정부 위 관계자들을 비롯한 각 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 및 단체들과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대구시는 대구공항과 마닐라 공항간의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필리핀 교통부 항공담당 차관 및 공항 슬롯 담당하는 민간항공청장과 필리핀 항공 부사장을 만나 적극 논의 -대구 메디시티협의회장과 김연창 경제부시장 등 방문단은 필리핀 1천500여개 자치단체 연합체를 방문하여 대구 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가졌으며, 향후 MMDA 산하 17개 시장단 회의에서도 대구 의료관광 홍보 기회 갖기로 합의 -필리핀 알베이주는 5월에 시장단 일행 60여명을 대구에 파견하여 의료관광 경험할 계획	한국경제	2017.4.26	Link
4		대구	의료관광+ICT클러스터+뉴타운…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수성의료지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말 123만㎡ 부지에 걸쳐 체류형 의료관광단지와 ICT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선진국형 쇼핑테마파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어우러진 뉴타운 수성의료지구 준공을 앞두고 있음 -현재 3개 해외투자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 -성형, 라식, 임플란트, 모발이식, 건강검진 등을 하는 의료시설과 의료관광호텔이란 체류형 숙박시설, 화장품, 피부관리, 미용 등 뷰티 사업을 유치해 치유와 힐링을 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체류형 의료관광단지로 계획중	매일신문	2017.4.28	Link
5		부산	[부산소식]의료관광 글로벌 마케팅 부문 대상 수상 등	-부산시, 2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MEDICAL ASIA 2017, 제10회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글로벌 마케팅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 수상 -한국의료 세계화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머니투데이, 동아닷컴, 중국동북아위성망 등 한·중 언론 3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관광공사 후원 진행됨	뉴시스	2017.4.27	Link
6		부산	부산관광공사, 몽골 초등학생 부모 상봉-부산 의료관광 팸투어 진행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에어부산이 공동으로 28일부터 몽골 초등학생 9명을 초청해 '부모 상봉 위해 부산가자 프로모션' 진행 -부산에 체류 중인 몽골근로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팸투어로 4박5일 동안 유명 관광지 방문, 의료검진 및 각종 체험행사 진행 -특히, 의료기술이 낙후되어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구강검진을 제공할 예정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몽골 국회의원, 언론사 등이 동행하며 몽골 언론사는 팸투어 일정을 밀착 취재해 몽골 초등학생들의 부산 방문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 -공사는 이를 통해 몽골 현지에 부산 의료관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acrofan	2017.4.28	Link
7		충북	날개 단 '충북 의료관광'…외국인환자 증가율 전국 3위	-지난해 충북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4천48명으로 전년(2천714명)보다 49.2% 증가 -이런 외국인 환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22.7%)보다 26.5% 포인트 높은 것으로 시·도 가운데는 경북(87.6%), 대구(6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지난해 충북 방문 의료관광객의 38.6%는 중국인이었고 몽골(6.5%), 러시아(6.1%), 우즈베키스탄(4.4%) 순 -이들의 1인당 진료비는 평균 151만원이며 총 진료비는 61억원으로 추정 쇼핑, 숙박 등을 포함한 의료관광 매출액은 129억원 정도 -충북도는 2013년부터 의료관광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2013년 816명에 불과했던 의료관광객이 4년 만에 4천명 넘어섬	연합뉴스	2017.5.1	Link
8		대전	'대전의료관광' 외국인 지난해 첫 1만명 돌파	-대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009년 사업추진 이후 처음으로 1만명 돌파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1만897명이 대전을 방문해 257억원의 진료수입이 발생했다고 발표 -이는 2015년 대비 외국인 환자(실환자 기준) 34.6%, 진료수입 41.2%가 각각 증가한 수치 -시는 의료관광객 1명당 진료수입 236만원, 관광수입 137만원, 입국 동반자 관광수입 210만원 등 583만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했고 이들을 통해 경제유발효과 635억원과 11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 -대전을 찾은 외국인의 국가별 현황은 ▲중국 3087명(28.3%) ▲미국 743명(6.8%) ▲러시아 481명(4.4%) ▲베트남 457명(4.2%) 순으로 집계됨	아시아경제	2017.5.1	Link

9	**해외**	세계	의료관광 관련 4가지 트렌드 4 Medical Tourism Trends to Watch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산업은 향후 10년간 매년 25% 성장할 전망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의료관광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눈 여겨볼 4가지 의료관광 트렌드 1. 개인의료도시 및 종합병원 부상 해외로 의료관광을 나서는 환자들은 치료 뿐 아니라 종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진료 과목을 가진 병원을 선호함 2. 아시아 지역 부상 최신 의료 기술, 의료 장비와 더불어 저렴한 비용을 자랑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의료관광을 떠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3. 숙련된 의료관광전문가 양성 의료진뿐 아니라 통역사 등 의료관광 산업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이 주목 받는 중 4. 의료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들 UAE, 그리스, 대만 등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의료관광 목적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가들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냄	Medical Tourism Magazine	2017.4.25	Link
10		싱가폴	싱가폴 방문 의료관광객 감소 중 FALLING MEDICAL TOURISM REVENUE FOR RAFFLES, SINGAPORE	-싱가폴 의료관광 선두주자인 Raffles Medical Group은 최근 인도네시아 환자들의 감소로 전체적인 해외 환자 감소를 겪는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중국 출신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외국인환자의 약 20% 차지했던 인도네시아 환자들의 감소율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 -원인으로 달러 강세, 의료비용 증가, 경쟁국 부상 등을 꼽음	IMTJ	2017.4.27	Link
11		일본	본격적으로 의료관광 산업에 뛰어드는 일본 JAPAN COMES TO THE MEDICAL TOURISM PARTY	-일본 정부, 헬스케어산업을 미래 주요 경제발전요인으로 뽑고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돌입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환자들과 일본의료수출에 집중할 계획 -그 동안 일본 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했다는 점과 헬스케어는 이익창출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통념이 일본의 의료관광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미 많은 해외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 위해 일본 방문하고 있음	IMTJ	2017.4.26	Link
12		인도	인도의 놀라운 의료관광 성장 India to roll out welcome mat for medical tourists	-인도의 웰니스 관광 산업, 지난 2년간 25% 성장 -인도 방문 외국인환자는 2014년 75,688명, 2015년 134,344명, 2016년 201,333명으로 급증 -이 중 3분의 1이 방글라데시인	webindia123	2017.4.30	Link

2017년 5월 2주차 (2017.5.2 - 2017.5.9)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중국인 성형 의료관광객,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한국식 성형보다 개성이 돋보이는 일본식 성형 선호 증가 (1번 기사) '한국식 성형 미인'에 싫증 느낀 중국인들 사이에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일본식 성형 수술이 입소문을 탐 2. 인천시,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 한국의료관광설명회에서 인하국제의료센터의 강점 홍보하고 비즈니스 미팅 진행 (2번 기사) 인천관광공사, 부평힘찬병원, 인하국제의료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의료관광 상품 소개하고 상담 진행 3. 충남대병원, KEB하나은행과 외국인환자의 효율적인 의료비 결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4번 기사) 이번 협약에 따라 외국인 환자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 결제 수수료(의료비의 3~4%) 절감 가능
	해외	1. 외국인 환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의 중요성 (6번 기사) 독특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 환자들의 국가별 예시 소개 2. 자국 의료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항공사들 (7번 기사) 일본 ANA, 터키항공, 말레이시아항공의 서비스 사례 소개 3.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IMTJ 의료관광 서밋 2017' (8번 기사) 4월 24-27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IMTJ 의료관광 서밋 2017" 에 35 개국 220 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의료관광분야의 글로벌 헬스 케어, 기술 및 데이터보안의 미래 등 여러가지 주제 논의 진행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세계	"붕어빵 한국 성형 NO" 유커, 개성미인 일본 성형 선호	-중국인 성형 의료관광객,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한국식 성형보다 개성이 돋보이는 일본식 성형 선호 증가 *중국 내 성형수술 보편화 추세 -왕홍(網紅 인터넷 방송 스타)의 인기, 외모를 중시하는 풍토 확산으로 성형 수술 나서는 중국인들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남성의 성형 수요가 증가하는 등 성별의 구분도 없어지는 추세 -2009년 중국 내 성형 시술에서 연예인 직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했지만, 2015년 45%로 줄었고 화이트칼라, 주부, 학생 등 일반인의 비중은 2009년 30%에서 2015년 45% 늘어남 *일본이 떠오르는 이유 -한국의 성형 수술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형식화된 것이 단점 달걀형 얼굴, 오똑한 코, 큰 눈 등 공식화된 미의 기준으로 수술하니 천편일률적인 개성없는 얼굴 양산됨 이른바 '한국식 성형 미인'에 싫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 -'한국인 성형 미인'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일본식 성형 수술이 입소문 타고 인기를 끌게 됨 -브로커와 병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문란해진 한국 성형 관광 시스템과 달리 일본은 투명한 가격체계와 안전 시스템을 갖춤	뉴스핌	2017.5.9	Link
2		인천	인천관광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인천의료관광 홍보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부평힘찬병원, 인하국제의료센터가 4월 28일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 사무소 주최로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초청하여 진행된 한국의료관광설명회에서 인천관광과 부평힘찬병원, 인하국제의료센터의 강점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미팅 진행 -29일에는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대표적 행사장인 시티몰에서 개최된 '한국의료웰니스관광 상품전'에서 인천의료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환승의료관광 상품을 포함한 인천 의료관광 상품 소개하고 개별상담 진행	베타뉴스	2017.4.30	Link
3		대구	대구시·공항공사지사, 국제노선 다변화 협약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와 대구시, 4일 대구국제공항에서 중국 사드보복 영향 극복 및 국제노선 다변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협약 내용: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지급 ·관광상품 개발·홍보 협력 위한 실무자 TF 구성 ·지역 관광자원과 축제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대구공항 홍보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 위한 상호정보 공유 · 숙박 및 공항 접근성 제고 위한 협력방안 모색	영남일보	2017.05.05	Link
4		충남	충남대병원, KEB하나은행과 외국인환자의 효율적인 의료비 결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남대학교병원과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외국인환자의 효율적인 의료비 결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외국인 환자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 결제 수수료(의료비의 3~4%) 절감 가능 -병원은 잠정적 체무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환자별 고유 외화가상계좌번호 부여로 지속적인 환자 관리 및 잔액 재송금 등의 업무가 편리해질 전망	디트뉴스24	2017.5.3	Link
5		전북	급증하는 '외국인 환자', 전북은 고작 1%대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전북은 오히려 줄며 전국대비 1% 수준에 머무름 -전북만의 특화된 의료 서비스와 상품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 -지난해 전북도를 찾은 외국인 환자수는 3천889명(1.06%)으로 전년 3천935명보다 오히려 46명 감소 지난 2009년 695명보다는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가 타 시도에 비해 한풀 꺾인 추세 -타시도의 경우 '해외의료팀'이 마련돼 지원에 나서고 있고 서울, 경남 등 타 시도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도는 이마저도 안되고 있는 실정	전북도민일보	2017.5.3	Link
6	해외	세계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Empathy in Medical Travel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의료관광 추세 속에 외국인 환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독특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 환자들의 국가별 예시: ·히스패닉계 환자들은 전통 시술, 약초 사용을 매우 선호하는데 이는 서양식 의료교육에 익숙한 의사들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음 ·아시아계 환자들은 의사나 어떤 권위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공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의사의 눈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데 의사들은 환자가 치료나 의사의 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아랍계 여성 환자들은 남편에게 치료 관련 결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남편이 오직 여의사에게만 시술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Medical Tourism Magazine	2017.5.2	Link
7		세계	자국 의료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항공사들 How Airlines Are Helping to Fuel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세계 여러 항공사들이 의료관광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등 의료관광산업 발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음 ·ANA는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의료관광객들에게 항공티켓과 숙박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제공함 ·터키항공은 의료관광객에게 반값 항공료 서비스 제공 ·말레이시아항공은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의회와 파트너를 맺고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노력	apex	2017.5.8	Link
8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IMTJ 의료관광 서밋 2017' IMTJ MEDICAL TRAVEL SUMMIT SHINES LIGHT ON CROATIA	-4월 24-27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IMTJ 의료관광 서밋 2017" 에 전세계 의료관광관련 오피니언 리더들과 간부들이 모여 미래의 의료관광산업 발전에 대해 논의 -35 개국 220 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의료관광분야의 글로벌 헬스 케어, 기술 및 데이터보안의 미래, 환자경험측정, 디지털세계에서의 환자 기대 충족 등 여러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 진행	IMTJ	2017.05.04	Link

gagaon net

*뉴스클리핑 담당: 방미환 사원

2017년 5월 3주차 (2017.5.10 - 2017.5.15)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상으로 연 사업설명회에서 주요 국가별 전략 소개 (1번 기사) 1) 베트남: 동남아 국가 중 방문자수 가장 빠르게 증가 중, 성형환자 증가 추세, 온라인 결제 수단 마련 필요,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추천 2) 중국: 성형환자 줄고 중증질환과 산부인과 관련 환자 증가 추세, 싼커 위주 전략 필요 3) 러시아: 루블화 환율 주시 필요, 루블화를 달러로 환전한 후 원화로 다시 환전해야 하기에 수수료 문제 발생하므로 금융상품 개발 필요 2. 인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2회 인천메디컬 페스티벌' 개최 (2번 기사) 환승고객 및 공항 이용 내외국인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성형, 피부, 안과 및 치과 상담 진행하고 다양한 사은품 증정할 예정 3. 대구, 동남아 의료관광 마케팅 펼쳐 15-17일 필리핀 알바이주 시장단 등 70여 명의 단체 의료관광객 유치 (5번 기사) 필리핀 알바이주 산하 레가스피(주청사 소재지), 피오듀란, 조벨러 등 8개 시의 시장 및 부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이들의 만족도에 따라 향후 필리핀 자치단체연합의 연수단 7천여 명 유치 성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외	1. 인도정부의 파키스탄에 대한 의료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도 의료관광에 큰 타격 입힘 (8번 기사) 비자제한 원인은 파키스탄 법원이 인도 국적의 퇴역 해군장군에게 간첩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 2. 헤어테라피로 급부상하는 이스탄불 의료관광 (9번 기사) 숙련된 외과의사, 첨단기술,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이스탄불의 모발이식 수술 덕분에 터키 방문 의료관광객 급증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상으로 연 사업설명회에서 주요 국가별 전략 소개 1. 베트남 -작년 8700명의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고 동남아 국가 중 방문자수 가장 빠르게 증가 중 -이제 막 베트남 경제 수준이 좋아지면서 성형수술 환자가 늘고 있고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은 구순구개열 등 재건성형을 위해 오는 환자들도 증가 추세 -베트남은 현재 온라인 결제수단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함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 필요 -현지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마케팅 효과적 강원FC에서 활동 중인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르엉 쑤언 쭈엉 선수를 한국의료 홍보대사로 임명해 효과 봄 2. 중국 -성형환자 방문자수는 주춤하고 중증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 중국에서 중증질환 수술은 대기시간이 매우 길다보니 한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됨 -단체관광과 달리 외교관계에 영향을 덜 받는 개별 관광객인 '싼커'가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전략 필요 -효과가 좋고 가격경쟁력 있는 불임, 난임 등 산부인과 관련 시술 위해 오는 환자 많아 적절한 전략 필요 3. 러시아 -러시아 환자들은 심혈관, 암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가 많음 -러시아의 환율 문제 주시 필요 루블화와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러시아환자들이 한국 방문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금융상품 개발 필요 -우리나라는 러시아 화폐인 루블을 잘 취급하지 않아 러시아환자는 루블을 먼저 달러로 환전하고 다시 한국 화폐로 이중 환전해야 하는데 그만큼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음	MEDIGATE NEWS	2017.5.13	Link
2		인천	인천시 관광공사, 국제공항 메디컬 페스티벌…성형/피부/치과 등 병원 참여	-인천관광공사, 15-19일 5일간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고객 및 공항 이용 내외국인 대상으로 의료 무료체험행사 '제2회 인천메디컬 페스티벌(Incheon Medical Festival)' 개최 -무료 건강검진, 성형, 피부, 안과 및 치과 상담 진행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사은품 증정 예정	cnb NEWS	2017.5.15	Link
3		인천	인천 의료관광 육성, 전담부서 없이 되겠나	-인천 외국인 의료관광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 의료관광 정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크게 감소 중 2015년 인천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만 6천 153명이었고, 2016년에는 1만 2천 992명으로 약 20% 감소 -인천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재단을 만들면서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음 당시 시는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해 지역의 의료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인천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기도 했음 -그러나 지금은 전담 부서 하나 없이 시 보건복지국 산하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주무관 한 명이 의료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총괄하고 있고 의료법인 설립·변경 허가와 종합병원 개설·변경 허가 등도 병행하는 실정 -타 지역 현황 1) 서울: 관광사업과의 특화관광사업팀에서 의료관광을 전담하고 강남구, 강서구, 서초구 등 기초단체에서도 관련 업무 추진 중 2)부산: 팀보다 한 단계 높은 '의료산업과'를 만들어 의료관광팀과 국제의료협력팀이 정책 추진 중 3)대구: 의료허브조성과 산하에 의료관광팀과 의료서비스팀을 두고 정책 추진 중	기호일보	2017.5.15	Link
4		인천	인천시의회, 외국인환자 유치 장려 위한 지원 조례제정	-인천시의회, 지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례안 심의·통과시킴 -이번 조례는 시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내용 포함됨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시장 확대를 위한 러시아 등 진료 수입이 높은 나라에 대한 유치 활동 지원이 제시됨	중부일보	2017.5.16	Link
5		대구	대구 의료관광, 필리핀 손님 70여명 단체로 유치	-대구시, 동남아 의료관광 마케팅 펼쳐 15-17일 필리핀 알바이주 시장단 등 70여 명의 단체 의료관광객 유치 -이번 방문단은 필리핀 알바이주 산하 레가스피(주청사 소재지), 피오듀란, 조벨러 등 8개 시의 시장 및 부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됨 -이들은 대구에서 건강검진과 피부관리, 한방진료 등 의료관광을 하고,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해 지진 재난안전 예방체험도 할 예정 -이번 방문단은 '샘플링(표본) 대표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 있음 대표단의 만족도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 자치단체연합(LMP)에서 추진하는 연수단 7천여 명 유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구시는 지난해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이후 시장 다변화 위해 동남아와 러시아 지역 등의 마케팅 강화했음 특히 필리핀을 타깃 국가로 삼고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마닐라와 알바이주를 방문해 도시 마케팅을 위한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관광 홍보센터 개소식 및 대구 의료관광 홍보설명회 개최함	매일신문	2017.5.16	Link
6		강원도	[뉴스 퍼레이드 강원] 도내 의료기관 찾는 외국인 환자 급증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환자 급증 -지난해 도내 의료기관이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모두 2,401명으로 전년 1,699명 보다 40% 이상 증가 -본격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선 지난 2009년 279명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로 가장 많았고, 몽골 6.6%, 러시아 6%, 미국 4% 순	G1	2017.5.1	Link
7		병원	차움, 국내 의료기관 최초 아르메니아 진출	-차움, 국내 의료기관으로서 최초로 아르메니아 진출 -러시아권에 잘 알려진 아르메니아 투자재단 IDeA (Initiatives for Development of Armenia)와 차움 딜리진 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업무협약 맺음 -차움은 의료서비스를 설계하고 채용, 교육등의 인사관리와 컨설팅 및 위탁운영을 맡아 진행할 예정	매일경제	2017.05.10	Link
8	해외	인도	파키스탄인의 의료비자 발급 제한으로 타격입은 인도 의료관광 Visa hurdle stops Pakistani patients, hits medical tourism	-인도정부의 파키스탄에 대한 의료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도 의료관광에 큰 타격 입힘 -비자발급 제한 전 많은 파키스탄 환자들이 간 이식·심장질환 등의 치료 위해 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 인도의 주요병원 방문했음 -비자제한 원인은 파키스탄 법원이 인도 국적의 퇴역 해군장군에게 간첩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 -인도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의료비 1) 파키스탄: 18만 루피 2) 방글라데시: 13만 루피 3) 영연방 국가: 12만 루피 4) 러시아: 10만 루피	The Times of India	2017.5.12	Link
9		터키	헤어테라피로 급부상하는 이스탄불 의료관광 Hair therapy boosts Istanbul's tourism	-이스탄불의 모발이식 산업이 떠오르면서 의료관광객 급증 -숙련된 외과의사, 첨단기술 및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관광객 방문 -이스탄불에서 약 1,200 유로 정도면 3일간 최고급 모발이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수술이 유럽에서는 6,000 유로 정도	THE HINDU	2017.05.10	Link

2017년 5월 4주차 (2017.5.16 - 2017.5.22)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정부의 강제보험 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보험갱신 고민, 의료관광 육성 커녕 발목잡는 정책으로 전락 (1번 기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병의원들은 갱신을 위해 외국인환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수 천만 원에서 수 억원까지 비용이 발생 2. 한국관광공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태평양국제관광박람회(PITE) 참가 (2번 기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한국 의료관광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홍보 3. 사드배치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회복 조짐을 보이자 자치단체들 중국인 관광객 맞이할 채비에 나섬 1) 인천: 중국 자매도시와 협력강화, 공무원 상호 파견 재개 (4번 기사) 2) 대구: 중국 현지 여행사 상대로 의료스포츠 마케팅, 언론사 팸투어 진행, 대구 관광지 안내 및 여행가이드북 발간 (5번 기사) 3) 부산: 부산 의료관광산업 특별전 개최 예정, '씨트립', '동정여유' 등 중국 현지 여행사 홈페이지에 부산특집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할 예정 (6번 기사)
	해외	1. 인도 (9번 기사) 6월 21일 인도 내 새로운 의료관광 및 웰니스 정책을 발표할 예정 병원 및 웰니스 센터가 관광부 사이트에 가입 후 패키지 절차에 관한 비용들을 공개, 통보하도록 결정을 내림 2. 그리스 (10번 기사) 아테네 치과 관광 클러스터, 그리스계 미국인과 그리스계 캐나다인 대상으로 치과관광객 유치 목표 JCI, TEMOS 인증 소개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갱신 '코미디 같다'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2016.6.23.) 이전 기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병의원들은 갱신을 위해 외국인환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수 천만 원에서 수 억원까지 비용이 발생함 -강제보험 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보험갱신 고민, 의료관광 축소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음	의학신문	2017.5.22	Link
2		정부	러시아의 관문에서 한국 의료관광 홍보 나선다	-한국관광공사, 19~2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태평양국제관광박람회(PITE) 참가하여 의료관광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홍보 -PITE 박람회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관광박람회로 올해 관광공사와 강원도,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항공사 6개 기관 참가하여 한국관광 홍보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 -지역 별 러시아 공략 현황 1) 부천: 의료관광상품,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홍보 2)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등 홍보 22일 극동지역 러시아 여행업자 50여 명 초청 한국 관광설명회 개최	Newsis	2017.5.17	Link
3		서울 (강서구)	강서구, 의료관광객 유치 위해 러시아 시장 공략	-25명의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대표단, 2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3박4일간 의료설명회 진행하고 의료관광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예정 -설명회에서 미라클메디특구에 위치한 40여개 병·의원 등 의료기술, 서울 주요 관광지 소개와 국가인증 된 의료관광특구의 특징, 안전성 홍보, 나눔진료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	아시아경제	2017.5.22	Link
4		중국	[르포] 관광업계 '사드 한파' 풀리나 " 유커 늦은 봄바람 타고 방한 기대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회복조짐이 보이며 하반기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풀릴 것이란 전망 이에 자치단체와 관광업계 중국인 관광객 맞이할 채비 나섬 -여행업계 상황 중국 3대 여행사인 '중국청년여행사' 산하 온라인 여행사는 금한령이 풀리자마자 한국행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짐 -지역별 대비현황 1) 제주: 한국관광공사의 현지 설명회 및 문화관광대전 등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 2) 인천: 8월부터 중국 다롄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사업을 재개 내년 초에는 상호 파견도시를 2개로 확대할 계획 올해 추진하려다 중단된 '인천·톈진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도 재개	중앙일보	2017.5.22	Link
5		대구	대구시, 중국관광객 유치 마케팅 '스타트'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 현지 여행사 마케팅을 시작으로 대구국제공항을 연계한 중국 전세기 관광객 유치 추진 할 예정 -대구시 진행계획 1) 6월: 중국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세일즈 마케팅 및 특수목적 관광상품설명회 개최 2) 8~9월: 중국 언론사 팸투어, 중국 여행작가들 초청, 대구 관광지 안내 및 대구 여행가이드북 발간 3) 9~10월: 중국 광저우, 쿤밍에서 관광 박람회에 참가, 중국 현지 여행사 대상 대구관광설명회 개최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나 제재 발표가 없었던 만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제 조치도 따로 없을 것으로 예상됨	포커스뉴스	2017.5.21	Link
6		부산	한·중관계 복원?-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 유치 전방위 마케팅	-부산시는 사드배치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회복 조짐을 보이자 중국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섬 -부산시 진행 계획 1) 6월: 16·17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부산관광설명회개최, 부산 관광상품 홍보 2) 7월: 씨트립, '동정여유'등 중국 현지 여행사 홈페이지에 부산특집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 여행 관련 파워블로거를 부산에 초청, 마라톤 참가 같은 테마 여행 상품도 개발할 예정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대형 쇼핑몰에서 제4회 부산 의료관광산업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 의료기관·호텔·면세점·여행사 등 부산의 35개 회사·기관이 45개 부스를 운영 예정	중앙일보	2017.5.18	Link
7		대구	수성대, 한-베트남 뷰티의료관광 산업 교류전	-18일, 대구시와 수성대학교 수성대 성요셉관에서 '제1회 한-베트남 뷰티의료관광 산업교류전' 개최 -베트남 정부대표단 참여, SLC코스메틱 등 15개사, 베트남 최대 화장품 업체인 신데렐라뷰티 등 31개 업체와 말레이시아 기업 대표 10여명 등이 참여하여 각 사의 주력제품 소개 -수성대는 뷰티워크숍 진행, 베트남 유학생들의 공연, 메디시티 대구 의료관광에 대한 설명 진행 -동남아지역에서 높은 K뷰티 인기로 본 행사 참여 희망한 현지 업체가 1000여 개에 이름	뉴스웨이	2017.5.17	Link
8		인천	인천관광공사 뷰티·의료관광지도 미인도 제작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뷰티·웰니스 관광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도 '미인도' 제작 -미인도는 K뷰티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쇼핑시설, 호텔 인근의 뷰티시설을 소개하는 지도로서 송도지역을 시범 선정해 진행할 예정 -뷰티시설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의료관광시설 소개와 함께 일부 제휴할인 정보가 수록될 예정	브릿지경제	2017.5.16	Link
9	해외	인도	인도의 새로운 의료관광 및 웰니스 정책 Medical tourism and wellness policy to be rolled out on June 21	-뉴델리 NDA정부는 6월 21일 인도 내 새로운 의료관광 및 웰니스 정책 발표할 예정 -정부는 의료관광 및 전통인도 건강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해 병원과 웰니스 센터가 관광부 사이트에 가입하고 패키지절차에 관한 비용 등을 안내하도록 함 -비용, 패키지 절차, 세부사항 공개 등의 정책을 통해 투명성 높여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The Times Of India	2017.5.21	Link
10		그리스	그리스계 미국인과 그리스계 캐나다인, 치과관광은 그리스로 Greek-American and Canadian Dental Tourists To Greece	-아테네 치과관광 클러스터, 그리스계 미국인과 그리스계 캐나다인 대상으로 치과관광객 유치 목표함 -2016년 클러스터는 치과 치료를 원하는 외국인환자 수를 늘리기 위해 시작됨 클러스터 내 치과는 스위스 승인, JCI인증, TEMOS 중 하나를 필수로 소지해야 함 * JCI인증: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엄격한 국제의료서비스 심사 거친 의료기관에 발급되는 인증 * TEMOS: 독일 국제 의료관광 기관인 Temos에서 엄격한 품질 평가를 시행한 후 발급되는 인증	IMTJ	2017.5.19	Link

2017년 5월 5주차 (2017.5.23 - 2017.5.29)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정부 - 국회에서 29일 '사드 후폭풍, 대한민국 의료 관광 산업의 돌파구를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2번 기사) 의료관광객 감소로 인한 문제점 및 대응책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웰니스관광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웰니스관광 25선 선정·발표 (3번 기사) 앞으로 치료중심의 의료관광을 넘어 건강과 힐링을 핵심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을 지원할 계획 2. 러시아 (4번 기사) - 2015년을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인의 의료관광객 수 10배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환자 적극유치 필요 국가별 러시아환자 유치현황 3. 지역별 동향 - 제주: 의료관광 홍보 해외마케팅이 직항노선이 없는 국가에서 이루어져 외국인 환자 유치 한계 (6번 기사) - 부산: 부산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일본오사카와 후쿠오카에서 '부산권 관광설명회' 개최 (7번 기사) - 대구: 대구를 찾은 해외환자가 크게 늘어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해외환자 2만명 돌파 (8번 기사)
	해외	1. 베트남 (10번 기사) - 호치민 관광부, 호치민에서 치과진료를 원하는 해외 여행자들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추진 예정 2. 두바이(12번 기사) - 두바이 보건당국, 보건 분야의 다양한 협력 위해 한국 보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정부, 의료관광 활성화 의지 있다면 돈 더 써야"	-국회, 29일 사드 배치로 인해 급감한 중국인 의료관광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중국인 환자증가로 대규모 투자와 성형외과 대형화, 통역서비스등을 진행했지만 중국사드 보복 이후 일부 의료기관 치료비 덤핑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한국의료브랜드 훼손될 위기 -대응책제안 1)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 체류 허용 또는 의료관광 비자 개설 2)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완화 3) 동남아, 중동 등 특수 언어에 대한 의료전문 통역체계 구축 4) 주요 거점 도시 외 중소 도시에도 직항 노선 확대 5) 국가별 의료법에 대한 교육 및 공유 6) 의료사고 발생 시 정부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Medical Times	2017.5.29	Link
2		정부	건강 ·힐링 관광 본격 육성한다…웰니스관광 25선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24일 웰니스관광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웰니스관광 25선을 선정·발표 -우리나라 웰니스관광 테마는 한방,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치유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선정됨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치료중심의 의료관광을 넘어 건강과 힐링을 핵심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 지원할 계획	아주경제	2017.5.26	Link
3		정부	2016년 외국인환자 진료수입 8,606억 기록	-보건복지부, 진료수입은 총 8,606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 2009년 이후 총 3조원을 누적 달성 -국적별 한국의료관광 현황 1) 중국: 전년 대비 29% 증가 12만7천명, 성형외과 비중 줄고 산부인과·정형외과 등이 증가 2) 일본: 전년 대비 41% 증가 2만7천명, 피부과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각각 1만5천명, 4천명 유치, 종양, 소화기 질환 등 내과를 가장 많이 방문 4) 베트남: 전년 대비 64% 증가 8천7백명, 내과, 산부인과를 많이 방문 5) 태국: 전년 대비 72% 증가 4천명, 성형외과를 가장 많이 방문 6) 중동지역: 전년 대비 19% 증가, 7천2백명,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가장많이 방문 -진료과별 현황 1)피부과: 일본 환자 증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8% 증가 2)산부인과: 러시아, 몽골 등 불임치료 수요로 전년대비 22% 증가 2만 3천명 유치	메디파나뉴스	2017.5.25	Link
4		러시아	의료관광에 중국 가고 러시아···"놓치지 않을거예요"	-최근 6년간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인의 의료관광객 수 10배증가 전문가들은 연 14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의료관광시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환자의 총 진료비는 792억원으로 외국인이 지출한 총 진료비의 11.8% 차지, 러시아는 방한 환자수 규모로는 3위, 진료 수입 규모로는 2위라고 밝힘 -국가별 러시아 환자 유치 1) 독일: 러시아인 의료관광 서비스 경험 풍부, 진료비를 사전에 명확한 매뉴얼로 설명해 신뢰도 구축 2) 이스라엘: 저렴한 의료비, 주요 도시 직항편 운영 등, 러시아 환자들의 주요 질병은 암, 근골격계, 당뇨병 3) 터키: 저렴한 가격, 실력있는 의료진, 러시아어 통용일반화 강점, 성형수술, 치과 등 의료관광 사업진행 4) 스위스: 고급 클리닉 중심, 1일 평균 7589달러 지출하는 부유층 러시아 환자 적극 유치	메디파나뉴스	2017.5.26	Link
5		제주	"의료관광해외마케팅 성과내려면 민관 협력 필요"	-의료관광 해외마케팅이 직항노선이 없는 러시아·베트남 등지에서 이루어져 외국인환자 유치에 한계 보임 -직항노선 있는 국가의 관광객이 제주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비율 · 일본: 2015년 0.33%에서 2016년 0.28%로 감소 · 중국: 2015년 0.12%에서 2016년 0.14%로 소폭 증가 -직항노선이 없는 국가의 관광객이 제주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비율 · 몽골: 전세기가 6대 운항된 2015년엔 13.4%였지만 전세기가 3대 운항된 2016년엔 9.53%로 감소 -의료관광 해외마케팅이 효과 보려면 해당 국가에 전세기를 띄우는 업체와 함께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	한라일보	2017.5.25	Link
6		제주	지난해 제주 외국인 의료관광객 전년 比 46% 증가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의료관광객 및 환자는 6666명으로 전년4552명보다 46.4% 증가 -그러나 올해 중국 정부의 방한 관광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인들의 발길이 뜸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제주 의료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개선 노력 진행 -제주도 의료관광 개선 진행상황 1)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안내 및 상담 진행 2) 한국관광공사 몽골과 카자흐스탄 사무소 협력을 통한 중앙아시아 유치공략 3) We호텔, 중동 의료관광상품 개발	제주신보	2017.5.22	Link
7		부산	'일본 관광객 유치' 팔 걷은 부산시	-부산시, 22일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에서 언론인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산권 관광설명회' 개최 -원아시아페스티벌, 부산불꽃축제 등 주요 축제들과 특화 의료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	세계일보	2017.5.23	Link
8		대구	대구시,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 2만명 돌파···비수도권 1위	-지난해 대구를 찾은 해외환자가 크게 늘어 비수도권에서 처음 해외환자 2만명 돌파 -지난해 대구를 찾은 해외환자는 전년과 비교해 62.5%로 전국평균23%대비 2.7배 증가 진료수입은 2015년 161억원에서 지난해 357억원으로 121.6% 증가, 1인당 평균진료비 36.4% 증가 -중증환자가 많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벌여 2015년 383명에 불과하던 의료관광객이 지난해 1816명으로 약 5배 증가	뉴시스	2017.05.23	Link
9		서울	서울시, 역대 최대규모 쇼핑관광축제 서울썸머세일 23일 개최	-서울시, 서울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2017 서울썸머세일'을 오는 7월 31일까지 70일동안 개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의료관광, 문화/엔터테이먼트,패션/뷰티 등 7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할인 혜택과 추가할인 쿠폰 등 제공	이데일리	2017.5.23	Link
10	해외	베트남	Ho Chi Minh City keen to develop dental tourism 베트남 호치민 치과관광으로 발전	-호치민 관광부, 호치민에서 치과진료를 원하는 해외 여행자들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추진 예정 -10만 명의 해외관광객이 매년 치과관광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며 1억5천만 달러의 수입 창출 -행정부는 치과 관광객 수를 향후 5년간 매년 25만명으로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	ELEVEN	2017.5.23	Link
11		독일	Berlin goes after Chinese medical tourists 베를린, 중국의료관광객 유치에 힘쓴다	-베를린,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섬 -베를린은 작년 러시아 및 CIS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및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2만명 환자 끌어드림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을 위해 2017년 3월 전문웹사이트 개설, 5월부터 중국어 버전 출시	TTG	2017.5.22	Link
12		UAE	Dubai Health Authority Signs MoU with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두바이 보건당국, 한국 보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체결	-두바이 보건당국, 보건 분야의 다양한 협력 위해 한국 보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의료관광, 기술, 모범사례, 의무교육 등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	MENAFN	2017.5.24	Link

2017년 6월 1주차 (2017.5.30 - 2017.6.5)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정부 (1번 기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라는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 의료 한류를 선도할 방침 2. 러시아 - 2016년 러시아 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 중 한국이 3위를 차지 (2번 기사) - 경기도 의료대표단, 러시아와 의료 협력 나서기 위해 5~10일 러시아 모스크바와 이르쿠츠크주를 방문하여 도내 우수병원과 의료기술 소개 (8번 기사) 3. 제주 (5번 기사) - 올해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예산이 단 5,000만 원에 불과해 외국인 환자 유치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서울 (7번 기사) - 강남구, 지난해 의료관광객 7만 명 돌파하며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1위 달성 베트남 해외설명회개최, 인도네시아 의료관광 팸투어 등 의료관광 마케팅을 추진하여 성과 이룸
	해외	1. 중국 - 중국의 열악한 의료시스템과 늘어나는 수요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중국 부유층 해외로 의료관광에 나섬 (9번 기사) - 30일 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에서 중국전통의학(TCM) 국제의료관광서비스 프로그램 발표 (10번 기사) 2. 인도 (12번 기사) - 스리랑카, 의료 관광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적극 나섬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국가브랜드로 의료한류 선도, 병원계, 돌파구 찾나?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일부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싹쓸이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 일부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어려움 겪는 상황 발생 이에 외교 관계 등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는 '메디컬 코리아'라는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 의료 한류를 선도할 계획 -한국보건진흥원 의료관광 활성화 노력 1) 메디컬 코리아를 활성화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 2) 한국 의료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웹사이트 운영 3) 지자체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지원 4) 7월·11월 비즈니스 미팅을 시행, 지역별 인프라와 의료 매칭한 융·복합 의료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메디파나뉴스	2017.5.29	Link
2		러시아	한국, 러시아 3대 의료관광국 부상	-2016년 러시아 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독일이며 한국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인 의료관광객 수 10배 증가, 연간 약 2만 명의 러시아인 방문 러시아 환자의 총진료비는 792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이 지출한 총진료비의 11.8% 차지 방한 환자 수 규모로는 3위, 진료수입 규모로는 2위 기록	후생신보	2017.6.1	Link
3		중국	中 '성형 한류' 겨냥?…1년간 불법 의료미용 집중단속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1년간 중국 전역의 불법 의료미용 시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섬 -이번 단속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식품의약품감독총국 등 관련 정부 기관들이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 -사드 보복에서와 같이 중국 정부가 단속을 빌미로 한국계 성형외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성형외과·미용업계 긴장	연합뉴스	2017.6.1	Link
4		전국	외국인들에게 인기 많은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는?	-한국으로 중국 의료 관광객 10명 중 3명은 성형 또는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여행사들 외국인환자 유치노력 1)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형수술과 관광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 2) 자국어로 된 홈페이지와 항공권예약부터 병원 예약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제공 3) 외국인 환자에게 의사, 간호사, 통역사 제공 대부분의 성형외과 또한 중국 표준어, 광동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외국인 통역사 배치 -처치술 및 수술비는 미국대비 1/10, 일본대비 1/5 수준이며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대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한금융신문	2017.5.25	Link
5		제주	고작 5000만원…의료관광 '말로만'	-제주 의료관광, 제주관광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강조하지만 정작 예산 부족으로 해외 마케팅 어려운 상황 -제주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의료관광 활성화, 도내 종합병원 및 피부과·성형외과 등 14개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했지만, 올해 도의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예산은 단 5,000만 원에 불과한 상태	제민일보	2017.5.31	Link
6		대구	동아시아 미녀 소셜 인플루엔서 대구시 팸투어 실시	-대구시는 컬러풀페스티벌의 외국인 참여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5부터 4일간 대만·홍콩·일본 소셜 인플루엔서 8명을 초청해 팸투어 실시 -이번 투어는 대구 의료관광체험, 대중교통을 이용한 대구여행, 근대골목투어 등 진행됨 * 소셜 인플루엔서(Social Influencer) :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통해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뜻함.	불교공뉴스	2017.6.1	Link
7		서울	의료관광객 7만명 돌파… 5명 중 1명 강남 찾아	-강남구는 지난해 7만 6,385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며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1위 달성 -지난해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의료관광객 36만 4,189명의 21% 강남 방문, 2015년 대비 40% 증가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여건 속에서 베트남 해외 설명회 개최, 인도네시아 의료관광 팸투어 등 의료관광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성과 이룸	아시아경제	2017.5.31	Link
8		경기	경기도 의료대표단, 러시아와 의료 협력 나선다	-경기도 보건의료대표단은 5~10일 러시아 모스크바와 이르쿠츠크주를 방문해 도내 우수병원과 의료기술 소개 -방문기간 동안 한-러 국제의료학술대회, 한-러 메디컬 비즈니스 포럼, 이르쿠츠크 글로벌 의료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진행	KNS뉴스통신	2017.6.5	Link
9	해외	중국	China's Ill, and Wealthy, Look Abroad for Medical Treatment 중국 환자들 치료받기 위해 해외로 가다	-중국 의료시스템이 늘어나는 수요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중국환자 증가 -중국 여행업체 씨트립닷컴: 지난해 자국의 해외 의료관광 건수가 약 50만 건으로 전년보다 약 다섯 배 증가 의료관광 에이전시 호프노아헬스컴퍼니: 지난해 1000명 이상의 중국환자들 해외로 보냄, 전년보다 두 배 증가 -중국 정부는 의료 관련 예산을 늘리고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수요 급증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	The New York Times	2017.5.29	Link
10		중국	北京發佈首批3 0個中醫藥國際醫療旅遊服務包項目 30가지 중국전통의학 국제의료관광서비스 프로그램 발표	-베이징 정부는 30일 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에서 중국전통의학 국제의료관광서비스 프로그램 발표 -프로그램은 시의 15개 TCM병원에서 불면증·침술 치료를 위한 30가지의 증상을 다루는 패키지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과적인 치료 및 전체 프로세스를 제공 -정부는 국가 의료관광 시범단지를 설립하여 전통의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중국 한족에 의해 발전, 현재 183개 국가와 지역에서 시행 중	news.sina.com.tw	2017.5.30	Link
11		인도	Sri Lanka seeks to carve out niche in medical tourism 의료관광 시장을 노리는 스리랑카	-스리랑카, 의료 관광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나섬 -관광진흥청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는 1분기에 전년 대비 3.4% 증가 -스리랑카 의료관광 활성화 노력 1) 정부, 의료관광업을 기존의 관광 및 보건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위 분야로 분류 2) 2015년 의료관광 진흥위원회 설립, 화장품 및 치과 진료에 대한 투자 적극 나섬 3) 민간병원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4) 수출개발위원회, 2016년 미국 의료관광품질협의회(MTQUA)에 의료관광서비스 평가 의뢰	IMTJ	2017.6.2	Link

2017년 6월 2주차 (2017.6.6 - 2017.6.12)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한국을 방문하는 수퍼리치들 (1번 기사) VVIP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이에 맞는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 정책에 다변화와 인프라 구축 필요 2. 서울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노력으로 외국인 환자 해마다 증가 (2번 기사) 지난해 중구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만 7,321명으로 전년도 1만 5,685명과 비교해 74% 증가 진료 수입도 전년대비 76% 증가한 406억 원으로 달함 3. 서울 대학병원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 입맛에 맞는 식단 개발에 적극 나섬 (3번 기사) 환자별 개인 취향 배려, 식자재 공급에 총력을 기울임 4. 대구, 23일부터 3일간 지역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산업분야 비즈니스 전시회인 2017 메디엑스포 개최 (4번 기사)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8개 의료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할 예정
	해외	1. 싱가포르 (7번 기사) 싱가포르 의료관광에 맞서 이웃 국가들이 신속하게 격차를 좁히고 있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웃 국가의 의료관광 비용 절감 및 품질관리 증가로 인함 2. 두바이 (8번 기사) 2016년 두바이 의료관광에서 14억 달러 창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도보다 9.5% 증가했으며 주로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료 목적으로 방문 3. 중국 (9번 기사) 난자를 냉동 보관하기 위해 대만으로 떠나는 중국 커리어 우먼 증가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 때문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세계	남대문시장서 막걸리 마시는 수퍼리치들	-한국을 방문하는 VVIP 관광객 증가 -최근 중동 부호들의 방문 중동국가의 한 공주가 방문하여 2억 원어치 쇼핑하고도 가져온 현금이 부족해 1억 원을 빌려 쇼핑 오만 석유 부호의 부인은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여 피부과 시술을 받음 -VVIP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인프라 조성, 관광상품 개발 등 지원정책 부족 프리미엄 서비스와 전문 가이드 육성 등 인프라 구축, 관광정책에 다변화 필요	주간조선	2017.6.5	Link
2		서울	중구, 의료관광 양적·질적 성장… 진료수입 406억 증가	-서울 중구의 의료관광 활성화 노력으로 중구를 찾는 외국인 환자 해마다 증가 -지난해 중구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만 7,321명으로 전년도 1만 5,685명과 비교해 74% 증가 진료 수입도 전년대비 76% 증가한 406억 원으로 달함 1) 국적별 방문 현황 · 일본> 중국 > 미국 > 러시아 2) 진료과별 현황 · 피부과 > 내과통합 > 산부인과 > 검진센터 > 한방통합 > 일반외과 > 비뇨기과	뉴스천지	2017.6.12	Link
3		서울	"외국인 환자 입맛 사로잡아라"…대형병원 식단 개발 경쟁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입맛에 맞는 식단 개발에 적극 나섬 -서울 내 대학병원별 현황 1) 강동경희대병원: 러시아인 환자들을 위해 국제환자 유동식·위절제후식 등 다양한 메뉴 개발 러시아어로 번역된 메뉴판을 이용해 식단 구성과 가격까지 볼 수 있음 2) 삼성서울병원: 서양식, 러시아식, 아랍식, 태국식, 몽골식 등 국가별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메뉴 구성 3) 서울대병원: 서양식과 할랄식으로 구분 할랄의 경우 수프 14종, 메인요리 6종, 샐러드 36종 등 끼니마다 다양한 메뉴 선택 가능 4) 서울아산병원: 모든 종류의 식단을 당뇨·저염·투석 등 환자의 질환과 영양 상태에 근거한 치료식 제공	연합뉴스	2017.6.9	Link
4		대구	지역 최대 보건의료산업 축제 '2017 메디엑스포' 개막	-대구시, 23일부터 3일간 엑스코에서 보건의료산업분야 비즈니스 전시회인 '2017 메디엑스포' 개최 예정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며 건강의료산업전, 대구국제의료관광전,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치과기자재전 등 보건의료 관련 4개 전시회를 270개사 800개 부스 규모로 개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8개 전문의료인과 지역 5개 대학병원을 비롯해 성형·정형·피부·재활·요양 등 40여개 전문 병·의원이 참가하고 의료기기 업체, 해외바이어, 의료관광객 등 2만 5,000여 명이 찾을 것 예상	UPKOREA	2017.6.12	Link
5		대구	국내 최초 팔이식 환자, 메디시티대구시 홍보맨이 되다!	-대구시, 국내 첫 팔 이식 환자로 화제를 모은 손진욱씨를 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 채용 -손진욱씨는 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서 메디시티 대구를 알리는 홍보맨으로 활동하며 해외 의료관광객에게 의료관광 홍보, 안내, 팸투어, 픽업서비스까지 다양한 업무 진행할 예정	국제뉴스	2017.6.7	Link
6		대전	대전시, 중국 의료관광 마케팅 재개	-대전시, 중국 의료관광 마케팅 재개에 나섬 -건양대병원을 포함한 3개 의료기관과 9일부터 3일간 중국 웨이하이 시를 방문해 성형, 미용 및 건강검진 관련 의료관광객 유치 상품 홍보 진행 -이번 설명회는 현지 지역 방송사, 의료기관, 에이전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비즈니스 상담과 의료기관별 의료상담 이뤄짐	파이낸셜뉴스	2017.6.8	Link
7		경북 (포항)	포항시, 새로운 의료관광의 명소로 부상	-포항시, '메디컬로드' 사업 추진을 비롯해 본격적인 의료관광산업 진출에 나섬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 운영 등 해외환자 수용 인프라 구축과 의료연수 나눔 의료 등을 통한 핵심 타깃 국가 위주의 관광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할 예정	일요서울	2017.6.11	Link
8	해외	싱가포르	싱가포르 의료관광 시장을 빠르게 추격하는 이웃국가들 Singapore tops for medical tourism, but rivals catching up quickly	-싱가포르 의료관광에 맞서 이웃 국가들이 신속하게 격차를 좁히고 있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웃 국가의 의료관광 비용 절감 및 품질관리 증가로 인함 -의료관광지수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비용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남 -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웃 국가에서의 환자 만족도는 2015년과 올해 사이 증가했고 의료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됨	The Straits Times	2017.6.5	Link
9		UAE	2016년 두바이 의료관광에서 3억 8,114 달러 창출 'Dubai generated Dh1.4 billion from medical tourism in 2016	-두바이, 지난해 약 326.649만 명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의료관광 부문에서 3억 8,114 달러 수입 발생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도보다 9.5% 증가했으며 주로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료 목적으로 방문 -두바이 방문 외국인 환자 국가 비율 1) 아시아 국가 37% 2) 아랍 및 GCC 국가 31% 3) 유럽 국가 15%	gulfnews.com	2017.6.6	Link
10		중국	중국의 커리어 우먼들, 난자 저장을 위해 대만으로 中国のキャリアウーマンたちが「卵子保存」のために、こぞって台湾へ	-난자를 냉동 보관하기 위해 대만으로 떠나는 중국 커리어 우먼 증가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 때문 -대만은 미국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기술력이 뛰어나 지난 5년간 중국 여성 환자 수가 2배 증가함	日刊サイゾ	2017.6.11	Link
11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 의료통역서비스 시행 訪日医療観光の外国人が増加、日本の地方自治体が医療通訳サービス	-일본 지방자치단체들, 올해 외국인 환자를 위해 의료통역 파견 업무 시행할 예정 -일본 현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각 병원의 의료 통역 시스템 부족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하게 됨	エキサイトニュース	2017.6.9	Link

2017년 6월 3주차 (2017.6.13 - 2017.6.19)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정부 (1번 기사) 인바운드 시장에서 문제 되는 의료분쟁 국제의료의 법적 쟁점 및 정책 동향 포럼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체불 분쟁, 불법 브로커 등 예방책 제시 2. 부산 (2번 기사)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 전년 대비 82.5% 증가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환자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진행 3. 대전 (3번 기사) 대전시와 대전 마케팅공사, '대전 메디컬 공모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의료관광 콘텐츠 41건 발굴 지역별만의 의료관광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함 4. 대구 (5번 기사) 대구시의 병원들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섬
	해외	1. 세계 (7번 기사)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국 소개 (싱가포르, 멕시코, 코스타리카, 브라질, 콜롬비아) 2. 중국 (8번 기사) 중국인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비 트렌드 변화 일본에 가서 건강검진과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새로운 관광방식을 선호 3. 멕시코 (9번 기사) 멕시코, 치과 관광으로 약 3억 7,200만 달러 수익 창출하여 2016년 비해 7% 증가 외국인 환자들이 멕시코에서 치과 진료 받을 시 자국보다 최대 90%까지 비용 절감 가능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의료사고, 진료비 체불 등 외국인환자 진료시 의료분쟁 예방하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개최 -국제의료의 법적 쟁점 및 정책 동향 포럼에서 단기수익 창출이 가능한 인바운드 시장 중요성 강조 -인바운드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 1) 의료사고: 계약체결 시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시해 놓는 것이 중요 2) 진료비체불 분쟁: 비 제휴 카드 등 사용 불가함을 사전에 공지하고 선결제 방식 적용 보험금 미 지급 시 환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 3) 불법브로커: 검증된 유치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 예방	한의신문	2017.6.16	Link
2		부산	부산,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부자 마케팅' 집중	-부산시,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이 전년 대비 82.5% 증가하면서 카자흐스탄 환자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진행 -부산시는 현지 은행, 여행사와 함께 부유층 고객을 위한 '부산의 의료관광 특화 VIP 비자카드' 발급 -해외여행 마일리지 적립, 부산의료기관 진료 및 수술비 결제 시 10~15% 할인 등 맞춤 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2017.6.13	Link
3		대전	대전 메디컬 공모전서 새 의료관광 콘텐츠 41건 발굴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 '대전 메디컬 공모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의료관광 콘텐츠 41건 발굴 -공모전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중에서 지역 병원만의 의료관광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개최 -인공지능 AI 왓슨, 세계최초로 신형 다초점 노안 라식 개발, 한국형 인공관절, 4세대 로봇 수술기 등 경쟁력 있는 지역만의 의료관광 콘텐츠 발굴됨	중도일보	2017.6.13	Link
4		인천	인천관광공사, 러시아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에이전시 초청 인천의료관광 홍보	-인천관광공사, 12일부터 5박 6일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의료관광 에시전시 및 언론인 13명을 초청하여 의료관광 집중 홍보 -이번 행사는 현지 언론인의 동행 취재로 카자흐스탄 현지에 인천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클 전망	일요신문	2017.6.13	Link
5		대구	[대구, 외국인 환자 2만명 시대] <중>"우리 병원 오세요" 발로 뛰는 병원들	-대구시의 병원들,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섬 -대구시 병원들, 외국인 환자 유치 진행현황 1) 비엘 성형외과: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7명의 통역 코디네이터 배치하여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2) 대구파티마병원: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노력 기울임 3) 대구종합검진센터: 검진결과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로 자동 번역제공 피검진자는 의사와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4) 부속대구한방병원: 외국인 전용 국제진료센터 오픈 한방치료실과 VIP전용룸 등을 갖추고 원스톱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매일신문	2017.6.15	Link
6		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카자흐스탄 넘어 중앙아시아 의료시장 '석권'	-고신대복음병원, 13일부터 5일간 카자흐스탄에 방문하여 2017 카자흐스탄 알마티 의료관광설명회 참가 -의료관광설명회 기간 동안 무료진료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국제신문	2017.6.18	Link
7	해외	세계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5 개국 5 Countries With The Most Affordable Healthcare In The World	*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 서비스 제공 국가 현황 -싱가포르: 미국보다 75%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누릴 수 있음 -멕시코: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로 진료비용은 미국에 비해 1/3 저렴 -코스타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좋은 의료시스템을 보유, 대부분의 진료는 미국 1/3 해당 -브라질: 브라질 헌법은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보장 의료비용을 지불 할 여력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 지급 -콜롬비아: 의료관광 중요성을 인지하여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	city of hype	2017.6.18	Link
8		중국	의료관광 – 새로운 여행의 선택 旅途中的新选择——医疗旅游	-중국인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비 트렌드 변화 일본에 가서 건강검진과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새로운 관광방식을 선호 -중국인들 일본으로 의료관광을 가는 이유 1) 거리, 비용, 비슷한 식문화 등으로 선호 2) 세계에서 암 예방으로 선도적인 국가 3)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大连天健网	2017.6.16	Link
9		멕시코	치과 의료 관광객 증가하는 멕시코 Dental medical tourism in Mexico on the rise	-멕시코, 치과 관광으로 약 3억 7,200만 달러 수익 창출하여 2016년 비해 7% 증가 -외국인 환자들이 멕시코에서 치과 진료 받을 시 자국보다 최대 90%까지 비용 절감 가능 -올해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에서 약 5,6000명의 환자가 입원할 것으로 예상	The yucation times	2017.6.16	Link

2017년 6월 4주차 (2017.6.20 - 2017.6.26)

국내외 의료관광 주간동향

주간 요약	국내	1. 정부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위해 쉽게 병원 정보를 찾고 예약·결제까지 할 수 있는 '메디컬 레저베이션' 사이트 개편 (1번 기사) 2)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만 2,000여 명을 사전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지출한 국가 중동 1위 (2번 기사) 중동국가 대상으로 의료관광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 필요 3) 보건복지부, 26일부터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하반기 신청 접수 시작 (3번 기사)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여 적극 알리기 위함 2. 대구 1) 대구 경북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산업분야 비즈니스 전시회인 '2017 메디엑스포'가 25일 성황리에 폐막 (4번 기사) 이번 행사로 104건 약 4천527만 달러 계약 예상 2)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중국 '리드림의료미용그룹'의 짠 종양 회장과 한·중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5번 기사) 3. 서울 (6번 기사) 강서구, 2018년까지 799억 원을 투입해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의료관광 기반 마련,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관광도시구현 등 4개 분야에서 20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
	해외	1. 인도 (8번 기사) 인도 산업 연맹 CII, 22일 북동부 지역을 의료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해 Manipur 수도 Imphal에서 회의 개최 2. UAE (9번 기사) 두바이 보건 당국, 의료관광을 홍보 활성화를 위해 The Health Bank와 파트너십 체결

Key Sources

번호	구분	지역	제목	내용	미디어	날짜	URL
1	국내	정부	의료관광 외국인 돕고, 은행 손님 늘리는 '우리 아이디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만든 '메디컬 레저베이션' 사이트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 개편 시작 -지난 2월 보건산업진흥원과 우리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예약·결제 시스템 진행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인해 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 3,100여곳의 정보 검색과 진료 예약 및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가능해짐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의료시술을 받거나 브로커를 통해 오는 의료관광객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경향신문	2017.6.26	Link
2		정부	만수르'의 아랍인 한국여행 씀씀이 최대…일본인은 '짠돌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만 2,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중동국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용 지출 * 국가별 지출 여행 경비 순위 1위 중동: 약 296만 원 2위 중국: 약 233만 원 3위 러시아: 약 202만 원 4위 싱가포르: 약 178만 원 5위 홍콩: 약 172만 원 6위 일본: 약 92만 원 -중동인들은 성형이나 미용, 건강 등을 위해 한국을 찾는 경우 많음 중동국가 대상으로 의료관광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 필요	연합뉴스	2017.6.21	Link
3		정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확대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고 이를 적극 알리기 위해 26일부터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시작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을 중점적으로 평가	의학신문	2017.6.25	Link
4		대구	2017 메디엑스포' 폐막…"104건 4천527만달러어치 계약 예상"	-대국 경북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산업분야 비즈니스 전시회인 '2017 메디엑스포'가 25일 성황리에 폐막 -23일부터 3일간 이어진 이번 행사는 345개 기업, 16개국 해외 바이어, 국내외 관람객 3만여 명 이상 방문하였으며 이외 의료관광 및 치과의료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비즈니스 전시회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음 -이번 행사로 104건 약 4천527만 달러어치 계약성사가 예상되며 몽골, 미얀마 등 9개국 110명의 해외 치과의사 및 바이어가 대구 치과 기업과 활발한 상담을 펼쳐 좋은 성과 기대	매일신문	2017.6.26	Link
5		대구	대구시, 中 사드로 주춤 대구의료관광 활성화 돌파구 마련	-대구시,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중국 '리드림의료미용그룹'의 짠 종양 회장과 한·중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리드림그룹은 주중 메디시티대구 의료홍보센터를 자체 운영하는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대구시에 송출한 후 진료받은 환자를 사후 관리하는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 -대구시는 리드림그룹 5개 병원 1000여 명의 마케팅 담당 직원을 활용해 중국 내 대구의료관광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거점 마련 -사드 배치 사태로 주춤해진 상황에서 중국 리드림의료미용그룹과의 협약 체결은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파이낸셜뉴스	2017.6.25	Link
6		서울 (강서구)	서울강서구, 지역경제 살리는 의료관광특구로	-강서구, 2018년까지 799억 원을 투입해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의료관광 기반 마련,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관광도시구현 등 4개 분야에서 20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 -미라클 메디를 통해 2020년에는 해외 환자와 관광객 1만 9507여 명에게서 2,20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소득 507억 원 증대, 일자리 4,187개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매일경제	2017.6.23	Link
7		인천	인천의료관광, 러시아 시베리아 시장 개척 주력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25일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개최된 한국 의료 웰니스 관광 상품전에 참가 -이날 부평 힘찬병원과 함께 참가하여 인천홍보와 의료관광상품을 소개하고 개별 상담 진행	매일일보	2017.6.29	Link
8	해외	인도	인도, 의료관광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Initiative carried out to make North-East a medical tourism hub	-인도 산업 연맹 CII, 22일 북동부 지역을 의료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해 Manipur 수도 Imphal에서 회의 개최 -전국 주요 의료기관의 CEO, 해외바이어 등 300여 명 이상의 이해 관계자 참여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의료교육, 저렴한 진료비 및 접근 가능한 의료시스템 등 다양한 세션에 관한 토론 진행됨	ANI	2017.6.22	Link
9		UAE	두바이, 의료관광 추진을 위해 파트너십 체결 Dubai Health Authority partners to drive medical tourism	-두바이 보건 당국, 의료관광을 홍보 활성화를 위해 The Health Bank와 파트너십 체결 -The Health Bank는 보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의료 관광객들에게 여행, 의료 및 애프터 케어 서비스와 의료기록의 전자 통합, 무휴 의료지원,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할 계획	IMTJ	2017.6.22	Link